

현 경 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이  
음악적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200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임 인 경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이  
음악적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현 경 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6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임 인 경

# 인 준 서

임인경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이 유동적 음악적성 (Developmental Music Aptitude)의 단계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음악적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의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제주도 제주시내에 있는 2개 초등학교에서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을 받고 있는 3학년 아동 57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현경실의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와 본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설문지,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는 교재곡과 자유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제작된 평가기준에 따라 세 명의 평가자가 채점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에 의해 처리되었다. 평균(Mean),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신뢰도(Reliability), 문항난이도(Item Difficulty)와 변별도(Item Discrimination), 상관계수 등을 SPSS 12.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아동들의 KMAT 리듬 검사의 평균은 23.14, KMAT 가락 검사의 평균은 24.56으로 현경실(2004)이 학년별 기준을 만들기 위해 조사한 초등학교 3학년 아동들의 평균보다 높았다.

둘째, KMAT의 신뢰도는 리듬 검사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84, 가락 검사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86으로 적성검사로써 높게 나왔다.

셋째, 난이도의 평균이 리듬 검사는 80.9, 가락 검사는 81.7로 연구 대상 아동들에게 적당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채점자 신뢰도는 리듬 영역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75, 가락영역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83, 음악적 표현 영역의 크론바흐 알파계수가 .88이었다. 이로써 채점자들이 일관성있게 채점을 했다

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음악적성과 바이올린 성취도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KMAT와 바이올린 성취도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리듬이 .81, 가락이 .73으로 유의도  $p < .01$  수준에서 상관있었다.

여섯째, 설문조사 결과 악기를 연주하는 가족의 수(설문 4번)와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기간(설문 5번)은 음악적성과 바이올린 성취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악기를 연주하는 가족의 수와 KMAT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34로 유의도  $p < .01$  수준에서 상관이 있었고, 바이올린 성취도와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32로 유의도  $p < .05$  수준에서 상관이 있었다. 또한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기간과 KMAT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37, 바이올린 성취도와의 피어슨 상관계수 역시 .37로 유의도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바이올린 특기 · 적성교육과 음악적성이 서로 상관이 있음을 실험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이 유동적 음악적성의 단계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아동들의 음악적성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이올린 특기 · 적성교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나 특기 · 적성 교육이 아동들의 음악적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특기 · 적성 교육의 활성화와 음악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제안한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4
3. 연구의 제한점 .....	5
4. 용어 정의 .....	5
II. 이론적 배경 .....	6
1. 초등학교 기악교육의 중요성 .....	6
2. 바이올린의 교육적 의미 .....	11
3. 특기 · 적성 교육의 의미와 목적 .....	14
4. 선행연구 .....	17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	23
1. 연구 대상 .....	23
2. 연구 도구 .....	24
3. 연구 절차 .....	40
4. 연구 분석 방법 .....	45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46
1.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	46
2.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의 분석결과 .....	57
3.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분석결과 .....	64
4.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와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상관관계 .....	67
5. 음악환경과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	70
V. 결론 및 제언 .....	75
1. 요약 및 결론 .....	75
2. 제언 및 후속연구 .....	77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 표 목 차

<표 1> 학교 및 성별에 따른 연구 대상 분포 .....	24
<표 2> 시노자키 교본에 따른 연구 대상 분포 .....	24
<표 3> 학습 진도가 하(下)인 그룹의 바이올린 성취도 평가기준 .....	32
<표 4> 학습 진도가 중(中)인 그룹의 바이올린 성취도 평가기준 .....	35
<표 5> 학습 진도가 상(上)인 그룹의 바이올린 성취도 평가기준 .....	38
<표 6> 검사 일시 및 장소 .....	43
<표 7> 설문 6번과 설문 4번, 5번, 7번의 상관관계 .....	55
<표 8> 설문 3번과 설문 5번, 7번, 8번의 상관관계 .....	56
<표 9> 설문 7번과 설문 11번, 8번의 상관관계 .....	56
<표 10> KMAT의 평균과 표준편차 비교 .....	57
<표 11> KMAT의 신뢰도 비교 .....	58
<표 12> 학년별 문항난이도 분포 .....	60
<표 13> KMAT의 문항난이도 .....	61
<표 14> KMAT의 문항변별도 .....	63
<표 15>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	65
<표 16>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채점자 신뢰도 .....	66
<표 17> KMAT와 교재곡을 통한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상관관계 .....	68
<표 18> KMAT와 자유곡을 통한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상관관계 .....	69
<표 19> KMAT와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상관관계 .....	70
<표 20> 악기를 연주하는 가족의 수(설문 4번)와 KMAT의 상관관계 .....	71
<표 21>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기간(설문 5번)과 KMAT의 상관관계 .....	72
<표 22> 악기를 연주하는 가족의 수(설문 4번)와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상관관계 .....	73

<표 23>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기간(설문 5번)과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상관관계 .....	74
---	----

## 그림 목 차

<그림 1> 일상생활에서의 의도적인 음악 감상 여부 .....	47
<그림 2>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 수강 결정에 영향을 미친 인물 .....	48
<그림 3> 아동들의 음악적 행위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 .....	49
<그림 4> 악기를 연주하는 가족의 수 .....	50
<그림 5>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 수강기간 .....	51
<그림 6> 개인적인 바이올린 연습시간 .....	52
<그림 7> 바이올린 연주에 대한 흥미도 .....	53
<그림 8> 바이올린 특기 · 적성 수업에 대한 만족도 .....	54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5년에 처음 시작된 방과 후 교육활동이 1999년 ‘특기 · 적성 교육’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실시된 지 7년이 지났다. 초기의 방과 후 교육활동은 단순히 정보화 · 세계화 시대에 맞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재는 그 의미가 확대되어 학생의 잠재적인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학교 실정과 지역사회 특성에 알맞은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르고 전인적인 인간을 육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현재 대다수의 학교에서 방과 후 특기 · 적성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의 2001년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특기 · 적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초 · 중 · 고 전체 학교수 10,666개 중 10,009 학교이다. 즉, 국내에 있는 99.4%의 학교에서 특기 · 적성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고, 40.2%의 학생들이 특기 · 적성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2005년 자료에 따르면 현재 특기 · 적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98.2%, 참여 학생이 32%<sup>2)</sup>로 조금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특기 · 적성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음악과 관련된 특기 · 적성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다. 그 중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은 정서 안정과 집중력을 기르는

1) 재인용. 이재오. (2001). 현행 특기적성 교육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200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 p.9.

2)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혁신위원회. (2006). 방과 후 학교 확산을 위한 교육감 · 교육장과의 열린대화. p.3.

데 효과적이고, 합주를 통해 협동심과 음악의 이해를 기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채택하고 있었다. 지역적으로 대전광역시 내 초등학교 128개교 중에서 65개교, 제주도 소재 초등학교 105개교 중에서 45개교에서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다.<sup>3)</sup>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초등학교 음악교육의 목표는 음악의 생활화를 목표로 누구나 음악을 즐기고 간단한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것이다.<sup>4)</sup> 악기는 리듬, 가락, 화성 등을 가지고 심미적인 느낌을 체험시키는데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기악교육은 청각, 시각뿐만 아니라 근육감각, 운동감각이 수반되어 음악을 체험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기악교육은 악기를 보고, 듣고 악기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으로 악기의 기술적인 테크닉과 좋은 연주자 양성을 강조하는 기악교육보다는 음악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끼고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기악교육이어야 한다. 또한 “어떤 사람이 음악을 배울 경우 얼마나 잘 배울 수 있는가 하는 잠재적인 가능성”<sup>5)</sup>이라고 할 수 있는 음악적성 개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기악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특기 · 적성 교육 활동 중 각 학교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바이올린은 강약 표현이 자유롭고 풍부한 음색을 가지고 있어서 음악교육의 목표인 다양한 악곡과 음악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는데 적합한 악기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제시한 특기 · 적성 교육 프로그램 중 바이올린 부의 지도목표를 살펴볼 때 이러한 점을 뚜렷이 알 수 있다. 아동들은 바이올린 교육을 통해 악기를 통한 연주능력 배양에서부터 소질 개발과 협동심 및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3) 제주도 교육청. (2004). 특기 · 적성 교육활동 지도자료. p.36.

4) 교육부. (1998). 초등학교 교과과정 해설(V). p.51.

5) 현경실.(2004).한국 음악적성 검사. 서울:학지사. p.21.

바이올린을 비롯한 다양한 음악교육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조기교육이 중요시되고 있다. 코다이(Kodaly, 1882-1967)는 예술교육에 관한 한 국제회의에서 음악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오르프(Orff, 1895-1982) 또한 음악의 체험은 어릴 때 시작해야 된다면서 되도록이면 이른 시기에 음악 지도를 시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6)</sup> 특히 음악적성을 “음악을 배울 수 있는 잠재력”<sup>7)</sup>이라고 정의한 고든(Gordon)은 유동적 음악적성(Developmental Music Aptitude)의 단계인 만9세까지의 기간동안 제공되는 음악적 경험이 매우 중요함을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정상인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음악적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9세 정도가 될 때까지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음악적 환경에 따라 변하며 그 후에는 고정된다.”<sup>8)</sup>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많은 음악교육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도 증명이 되었다. 포사(Fosha)와 타렐(Tarrel)의 연구는 음악적성 소질 검사의 점수가 4학년 즉 10세가 지나면 그 후에 음악을 배우더라도 별로 변하지 않음을 증명하였으며, 헤링톤(Harrington)의 연구에서는 저학년의 음악적성 점수가 고학년의 점수에 비하여 변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저학년에서는 음악교육이 음악적성에 영향을 주지만 4학년이 지나면 음악적성이 고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sup>9)</sup>

9세 이후에 음악적성이 고정된다고 해서 음악을 배울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음악적성의 차이에 따라 음악적 성취도가 달라지므로 9세 이전의 음악적성 개발은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음악능력은 다른 능력에 비해 발견되는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보다 이른 시

6) 이홍수. (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세광출판사. p.332, 355.

7) 재인용. 현경실. (2004). 전계서. p.21.

8) 재인용. 상계서. p.24.

9) 재인용. 상계서. p.24.

기에 아동들이 음악을 통하여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발달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음악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처럼 중요한 음악적성을 기르기 위한 하나의 교육적 방법으로서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아동의 음악적성 발달에 효과적인지 검증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바이올린 특기적성 교육이 유동적 음악적성(Developmental Music Aptitude)의 단계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음악적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의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문제

본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평가기준을 객관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

둘째,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이 음악적성에 미치는 영향은 높은가?

셋째, 아동이 처한 음악적 환경이 음악적성과 바이올린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자는 제주도 제주시내에 있는 2개 초등학교의 3학년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음악적성 검사와 음악성취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바이올린 특기 · 적성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의 초등학교 모두에 본 결과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둘째, 특기 · 적성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만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을 받는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므로 이 결과가 음악교육 전반에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 4. 용어의 정의

#### 1) 음악적성

음악적성이란 음악성이라는 용어와 같이 사용되며, 고든(Gordon)은 ‘음악을 배울 수 있는 잠재력(potential to learn music)’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음악적성, 음악성이라 함은 어떤 사람이 음악을 배울 경우 얼마나 잘 배울 수 있는가 하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말한다.<sup>10)</sup>

---

10) 상계서. p.21.

## 2) 음악성취도

음악성취도란 어떤 사람이 음악을 얼마만큼 현재까지 배웠느냐 하는 현재의 학습 성취 정도를 말한다.<sup>11)</sup>

---

11) 상계서. p.22.

## Ⅱ.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초등학교 기악 교육의 중요성과 바이올린의 교육적 의미, 특기 · 적성 교육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1. 초등학교 기악 교육의 중요성

우리나라 학교제도에서 초등학교 3학년은 만 9세로 유동적 음악적성 (Developmental Music Aptitude)의 시기이다. 고든의 연구에 따르면 이 단계에서는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음악환경에 의하여 음악적성이 변하며, 이 시기가 지나면 고정된다고 하였다.<sup>12)</sup> 현경실(2004)은 9세 이후에도 음악을 배울 수 있지만 음악적성이 더 이상 개발되지 않으므로 음악적 성취도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sup>13)</sup> 따라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음악 적성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잠재된 능력을 실현시키려면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음악적 경험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 중 음악학습에 있어서 기악 활동은 가창이나 감상 등 다른 활동이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음악적 경험을 학습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아동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이 시기의 아동들은 수준 높은 기악 교육이 가능할 정도의 신체적, 지적 발달을 이룬다. 오브라이언(O'Brien, 1803-1864)은 초등학교 3-4학년이 되면 큰 근육이 거의 자유롭게 조절이 되고 작은 근육 움직임도 계속 향상되어,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고, 음악적 훈련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 시기의 정신발달은 주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학구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고, 8,000여개의 단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

12) 재인용. 현경실. (2004). 전계서. p.24.

13) 상계서. p.24.

읽는 힘도 뚜렷하게 향상된다고 한다. 특히 음감이 발달하고 악보에 대해 이해하게 되어 이 시기의 아동들은 많은 음악 기술과 개념들을 습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주의 집중 시간도 길어져 한 가지 활동을 오래할 수 있는데다 음악 감상을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다고 한다. 동료들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음악적 그룹 활동이 가능하고, 화음감이 덜 발달되었지만 장조의 으뜸 화음, 버금딸림화음, 딸림화음을 듣고 식별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시기 아동들의 특징이라고 하였다.<sup>14)</sup>

피아제(Piajet, 1896-1980)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인지 발달 단계는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된다. 성경희는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어린이들의 음악적 능력과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15)</sup>

첫째, 음악의 제반 개념 획득이 이 시기에 가능하며, 이들 개념 획득의 순서는 셈여림, 음색, 박자, 음의 길이, 음의 고저, 화음의 순이다. 개념 획득 과정의 순서는 사실상 음악 수업을 계획하고 이끄는 데 여러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셈여림에 대한 개념은 어린이들에게는 사실상 가장 쉬운 개념으로 특히 높은 학년에서 교사가 이를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음을 또한 시사한다. 개념 획득의 중요한 시기로 이는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절대 음감의 획득이 비교적 쉬운 시기이다. 절대 음감의 획득 가능한 시기는 사실상 3,4세이다.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절대 음감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려워지지만 그 시기가 늦었다면 초등학교에서라도 시작하는 것은 중요하다.

셋째, 음악기술획득은 나이에 상관된다. 아무리 좋은 연주 기법이라 하더라도 신체적으로 준비가 안 되고 발달이 안 된 어린이들에게는 소용이 없다. 따라서 악기를 다루는 연주 기능을 가르칠 때는 어린이들이 어느 정도 신체적으로 발달된 다음에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다.

넷째, 개념의 보존 능력도 연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즉 나이가

---

14) 임미경, 길애경 편저. (1996). 초등음악지도법. 서울:수문당. p.9-15.

15) 성경희. (1997). 음악과교육론. 서울:잡음출판사 p.163.

먹을수록 아동들의 보존 능력은 발전, 진보한다. 또한 음악의 보존에 있어서 초등학교 3,4학년 정도가 학습의 정점인데 이는 4학년 정도에서 음악의 제반 개념을 거의 획득할 수 있다는 뜻으로 4학년 이전까지의 음악 수업의 중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학습의 정점을 극복하고 4학년 이후부터 수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느냐가 음악과의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1919년 독일의 사상가인 슈타이너(Steiner, 1861-1925)에 따르면 이 시기는 ‘감정체’로 발달하는 기간에 해당된다. 즉, 그는 풍부한 감성을 지닌 감정체의 발달에 중점을 두어 예술을 통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특히 슈타이너에 의해 처음으로 시작된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예술교육을 위해 아동들이 학교생활을 통하여 바이올린이나 라이어, 리코더와 같은 악기를 다루도록 하였다.<sup>16)</sup>

조효임 · 장기범은 이 시기의 어린이들이 보여주는 중요한 음악적 성장 중의 하나가 청각각의 발달과 음악적 기호의 형성이라고 하였다. 청각각은 초등 3-4학년 시기에 가장 예민한 상태에 도달하므로 청각각 발달에 효과적인 기악학습방법을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음악적 기호는 어떤 음악을 많이 접해 왔는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시기의 어린이에게 교사는 다양한 음악적 체험과 예술성이 풍부한 악곡을 선택하여 접할 수 있게 해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였다.<sup>17)</sup>

따라서 이홍수는 이 시기의 아동들이 신체적인 조건에서나 지적인 면에서 악기를 본격적으로 배울 수 있는 상태에 와있기 때문에 반드시 악기를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고, 악기 연주는 아동의 음악적 능력의 균형있는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sup>18)</sup>

---

16) 고야스 미치코. (1998). 독일의 자존심 슈타이너 학교. 임영희. 이야기 역. 서울:밝은누리. p.68.

17) 조효임. 장기범 편저. (2005). 초등기악교육론. 서울:예일출판. p.65.

인간이 음악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표현의 매체는 음성이지만 음성을 매개로 하는 가창 표현은 음역 때문에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조건을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악기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조건을 넘어서 표현이나 기능, 악기가 가지고 있는 소리의 울림 등을 통하여 표현의 가능성을 크게 확장시켜주므로 악기를 통한 음악학습은 학습자에게 특별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성취감을 경험하게 한다. 기악활동은 기악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음악교육의 본질적 목적 중 하나인 ‘음악하기’의 경험을 제공하며, 음악 감상 능력의 향상에 기여하는데다 학교의 교과들 가운데 공교육 기간이 지난 후에도 평생 동안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sup>19)</sup>

이처럼 중요한 기악 교육은 우리나라 7차 교육과정의 음악과 교수 학습지도 방법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즉 악기 연주를 통해 음악 개념을 형성하고 연주력을 향상시키며 연주 활동의 즐거움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자아실현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달크로즈(Dalcroze, 1865-1950), 코다이, 오르프, 고든 등의 유명한 음악 교수 이론에 기악 교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없다. 달크로즈는 피아노, 타악기 등을 이용한 즉흥 연주가 사용되고 있으며, 코다이는 리코더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고든은 그의 교수 이론에 근거한 리코더와 피아노를 중심으로 한 악기 교본을 내놓고 있으며, 오르프는 어린이들을 위한 악기를 개발하였다. 이 악기들은 오르프 악기라 불리우며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오르프 수업에서의 악기의 사용은 중요한 파트이다.<sup>20)</sup>

조효임 · 장기범은 이 시기의 음악적 발달을 위해 중요한 초등음악교

---

18) 이홍수. (1990).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세광음악출판사. p.188.

19)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 권덕원. (2006). 음악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교육과학사. p.170.

20) 현경실. (1997). “초등학교 기악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 논총 제10집. p.209.

육에서 기악교육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sup>21)</sup>

첫째, 다양한 소리에 대한 감각을 키워준다. 발달단계에 따라 이 시기의 음악적 경험은 아동의 음악적 능력의 신장에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소리들을 접하여 소리에 대한 감각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 어떠한 소리를 듣더라도 그것을 소음으로 여기기보다는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나름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서의 소리에 대한 감각의 개발은 초등기악교육을 통하여 얻게 되는 교육적 의의이다.

둘째, 어린이의 음악적 식견을 넓혀준다. 단순한 소리 이상의 것을 들어서 심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적 식견은 어려서부터 개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악교육은 창작, 감상 등과 함께 어린이의 음악적 식견을 넓혀주는 또 다른 창구이다.

셋째, 변성기나 성대가 미성숙한 어린이들이 음악을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방안이 된다. 기악교육은 성대가 미성숙한 어린이나 변성기의 어린이들이 중단 없이 음악을 접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이다.

넷째, 음감과 음색 개발의 기회가 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3세에서부터 고정음 악기를 연주하면 약 93% 정도의 어린이들이 절대음악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다섯째, 다양한 음악적 개념에 대한 이해의 창구가 된다. 성악과 달리 썸머립의 극적인 표현, 음악적 빠르기의 기악적 표현, 악기와 악기가 어우러져 이루어내는 조화와 균형, 음색의 개념 등은 기악교육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음악적 개념들이다.

여섯째, 필요한 동작 기능을 개발할 수 있다. 연주에 필요한 신체의 협응력, 악보를 보며 판단하고, 그것을 연주하는 전인적인 교육은 기악교육만

---

21) 조효임. 장기범 편저. (2005). 전계서. p.11-14.

이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일곱째, 협동심을 가질 수 있다. 기악교육은 합주나 앙상블을 통해 음악성의 개발이외에도 인간의 상호작용과 협동심을 키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덟째,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며, 다양한 자기표현의 창구가 된다. 악기를 활용한 추상적 표현은 언어를 통한 구체적 표현을 능가하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아홉째, 평생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창의력 신장, 고유한 문화유산을 접하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종류의 기악 교육을 통해 그들이 가진 음악적 능력이 발달할 것이며, 음악을 통하여 예술의 세계를 접하게 될 것이고, 음악의 즐거움을 체험하여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바이올린의 교육적 의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로 유명한 메뉴인(Yhudi Menuhin, 1916 - 1999)은 바이올린이 어린이에게 적합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22)</sup>

첫째, 바이올린은 촉각적인 악기로 아동은 테디 베어를 느끼고 만지듯이 소리 냄으로써 아동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다.

둘째, 바이올린은 악기를 연주하는 아동 스스로 음색과 음높이를 만들

---

22) Y. Menuhin. (1986). *The compleat violinist : thought, exercises, reflections of an itinerant violinist*. New York : Summit Books. p.11.

어야 한다. 소리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피아노와 달리 바이올린은 자신이 의도하고 있는 소리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악기이다. 위대한 피아니스트의 소리를 구별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기교적인 차이일 뿐이다. 그러나 바이올린은 소리와 음색, 연주방법이 즉각적으로 구별된다.

셋째, 바이올린 연주는 피아노 연주와 달리 몸 전체를 사용한다. 피아노는 발, 손가락, 머리를 주로 사용하지만 바이올린은 신체 전부를 사용한다.

넷째, 바이올린은 선율적인 악기이다. 만약 아동이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다른 친구, 부모가 부르는 노래를 듣는다면 연주를 더 감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바이올린은 첼로보다 아동의 자연적인 음역과 가깝고 악기 사이즈가 작아 이동하기가 편하다.

다섯째, 바이올린은 합주와 앙상블이 가능한 악기로 다른 사람의 소리를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으며, 양보와 협동의 의미구현을 할 수 있다.

김혜숙(1985)은 “바이올린 교습의 교육적 가치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바이올린 음악학습이 현대와 같이 소음과 기계화에서 오는 고독감과 복잡한 환경 속에서 정서적 안정을 가져오게 하고, 두뇌개발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바이올린을 학습한 아동들은 남, 녀의 성격 변화와 원만한 교우관계, 학습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이올린 교육의 장점을 정서적 안정으로 인한 침착함과 생활에 대한 자신감, 명랑하고 활동적인 성격의 형성에 두었다. 하지만 바이올린 교육이 아동들의 음악적 음감 향상과 인내심, 자립심을 길러준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악기에 비해 연주상의 까다로운 점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바이올린에 대한 흥미도가 머무르거나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sup>23)</sup>

---

23) 김혜숙. (1985). 바이올린 교육의 교육적 가치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42-44.

함상리(1998)에 따르면 바이올린은 놀이에 필요한 장난감처럼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어 아동들과 쉽게 친숙해질 수 있는 악기라고 하였다. 또한 독특한 연주 자세로 턱에 대고 연주하며, 자기 소리를 듣는 아동은 그 소리가 마치 자기 몸에서 나오는 소리라도 같이 느낄 수 있어 아동의 머리와 몸에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바이올린은 음악적 개념을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악기이고, 집중력을 길러준다고 하였다. 조현된 현의 바른 자리를 누르지 않으면 음이 되지 않는 바이올린이 음악교육에 약점으로 보일 수 있으나 아동들에게는 장점이 된다고 하였다. 즉, 자신이 직접 음정을 찾고 음색을 만드는 것에 아동은 만족을 느끼며 본인이 하기에 따라 음악이 이루어 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책임감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였다.<sup>24)</sup>

이지연(1998)은 바이올린의 교육적 의의를 청각발달과 운동감각발달, 지각발달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의 시기는 청각각이 가장 민감한 시기로 이 시기의 적절한 바이올린 교육은 청각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줘 중, 고등학교에 발달하는 청반응에 매우 높은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음악에 대한 기대와 관심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바이올린은 신체 전부를 사용하는 악기로 운동감각의 발달을 가져오며, 다양한 교재를 통해 운동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리듬감 향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음악학습과 관련이 깊은 지각은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3학년을 기점으로 현저하게 발달하는데, 바이올린을 통한 적절한 지도가 그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sup>25)</sup>

이금희(2003)는 탁월한 배음, 화려함과 섬세함을 지닌 바이올린은 물리적인 음향 법칙으로 보나 형태적인 완전성으로 보나 매우 완벽한 악기이며

24) 함상리. (1998). 바이올린 조기 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p.5-6.

25) 이지연. (1998). 어린이의 음악적 감각발달단계에 따른 바이올린 교육.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p.22-44.

어떤 악기보다 섬세하고 표현력이 풍부한 악기라고 하였다. 또한 오케스트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음량과 감정표현이 풍부하고 기교가 자유로워 아동의 음악성 발달에 적합한 악기라고 하였다. 왼손은 손가락으로 현을 누르고, 오른손은 활을 당기는 움직임을 통해 좌뇌와 우뇌를 고루 발달시켜 두뇌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유럽의 연구결과를 예로 들어 주장하였다. 또한 아동의 연령과 신체조건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악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점이 바이올린 교육의 큰 장점이라고 하였다. 즉, 크기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피아노는 몸집이 작은 어린이들에게 악기를 제대로 다루는 데에 한계가 있지만 바이올린은 체구에 따라 적당한 크기를 선택할 수 있어 유아부터 중압감 없이 배우기에 적합하다는 것이다.<sup>26)</sup>

오인교(2003)에 따르면 적절한 바이올린 교육은 절대음감이 생기는 시기에 효율적인 기악교육이며, 조화로운 전인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음악 기능 및 소질계발에 긍정적이고, 정서 안정과 집중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바이올린은 여러 명이 그룹으로 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조기교육이 가능하다고 하였다.<sup>27)</sup>

### 3. 특기 · 적성 교육의 의미와 목적

특기 · 적성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학습 이외에 학교 유휴 시설을 활용하여 특별히 행해지는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활동은 구체적인 개념 정리의 교과학습과는 달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건전한 취미활동이나 특기 또는 기능 육성 및 민주적

---

26) 이영기. (2003). 아동의 음악 흥미도와 감성지능과의 상관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p.11-12.

27) 오인교. (2003). 초등학교 특기 · 적성 교육을 통한 바이올린 능력 향상 방안. 석사학위논문,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p.12.

생활태도를 기르기 위해 행해지는 활동이다.<sup>28)</sup>

특기 · 적성 교육은 1995년 5. 31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가정 경제와 국가 경제의 막대한 손실과 학생들 간의 지나친 경쟁심으로 인한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 학교 밖의 과외 활동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였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과 학생들의 개성 신장, 소질 계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고 있다. 이것은 제주도 교육청의 2004년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제주도내 초등학생 전체 5만2300여명 중 2만5100여명(48%), 중학생은 2만2200여명 중 1만1300여명(51%), 즉 제주도내 초등학생과 중학생 절반 이상이 학교에서 특기 · 적성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sup>29)</sup>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기 · 적성 교육의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0)</sup>

첫째, 학생의 소질, 적성 계발 및 보충교육의 기회 제공으로 인성교육을 정착시킨다. 즉,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고려하여 소질을 계발시키고 교과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개인이 직접 선택하여 참여함으로써 특기 신장 및 인성교육의 계기를 마련한다.

둘째, 학교의 시설 및 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한다. 방과 후 빈 교실을 이용하여 교내 활동의 일환으로 교육효과를 높이고, 교사 및 전문 강사로부터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을 접하게 한다.

셋째, 지역사회 교육 문화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학교 주변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장이고 문화의 장으로서 누구나 쉽게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를 경감시킨다. 즉, 학원이나 과외 또는

---

28) 재인용. 이선희. (2003). 특기 적성 교육과 연계한 초등학교 관현악반 운영 방안.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p.14.

29) [조선일보] 2004년 9월 17일자.

30) 교육개혁위원회 편. (1995).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 p.25.

개인 레슨의 경우 적잖은 가계부담으로 보충교육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과중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최대의 교육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특기 · 적성 교육활동의 시행을 정착시킨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설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바이올린부 특기 · 적성 교육의 지도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1)</sup>

첫째, 바이올린의 특성을 알고 정확한 주법으로 연주하는 능력을 기른다. 바이올린은 어떤 악기이며 바른 연주법은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익숙하게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일이다.

둘째, 연주활동을 통해 자기가 가진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독주, 또는 합주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비교를 통한 발전 가능성을 더욱 고조시킨다.

셋째, 연주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친구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독주와는 달리 합주는 각 개인의 기능보다 전체적인 조화를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협동하고 보완해주며, 도와주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넷째, 꾸준한 연습을 통하여 음악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음악을 생활화하게 한다. 처음 배울 때는 아름다움을 느끼기보다는 호기심에서 악기를 연주하게 되지만 점차 익숙하게 연주하게 되면서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아름다운 곡에 대한 동경을 하게 되면 아름다운 표현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아동들은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듯 바이올린 지도의 목표는 악기를 통한 연주 능력 배양에서부터 소질 계발과 협동심 및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대한 의의를 갖는다.

---

31)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00). 방과 후 특별활동 지도방안. p.26.

#### 4. 선행연구 고찰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분류된다. 첫째는 초등학교 바이올린 부 특기 · 적성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 운영방안을 연구한 논문들이고, 둘째는 바이올린 기초교재를 비교 · 분석함으로써 각 교본의 특징을 제시하고 어린이 바이올린 기초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논문들이다.

한현주(2004)는 “초등학교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sup>32)</sup>에서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의 실태를 조사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울 지역과 경기, 인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 47개교 762명과 90개교 90명의 바이올린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도구는 연구자가 제작한 설문지로 교사용 설문지와 학생용 설문지 모두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 1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위의 과정으로 나온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의 일반적 인 특징으로는 대졸이상, 경력은 10년 미만인 대다수이고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다. 학생의 일반적 특징으로는 여학생이 주로 많고, 고학년인 5-6학년에서 급격한 인원감소를 보인다. 둘째,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사 교육이 부족하다. 셋째, 한 학급당 학생수가 10명 이상으로 교실 수업환경이 열악하다. 넷째, 바이올린 수업장소로 교실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데, 방음이 되지 않은 상태라 수업 진행에 불리하다. 다섯째, 사물함의 설치와 바이올린

32) 한현주. (2004). 초등학교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의 구입이 필요하다. 여섯째, 방학 중의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 실시는 64.4%가 실행하고 있다. 일곱째, 교재의 선택에 있어 스즈키와 시노자키 교본을 선호한다. 여덟째, 49.4%의 교사들이 사교육비 절감효과에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이러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열악한 교실환경의 개선과 교육시설의 확충, 바이올린 교본의 다양화, 학부모와 학교의 지속적인 관심 등을 제언하였다. 또한 바이올린을 배우는 연령층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급감하고 있는데 바이올린 교육이 학과 공부를 중시여기는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 영향 하에 있는 현실을 교사는 직시하고 올바른 교육풍토가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하여 교육부와의 끊임 없는 대화를 통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의 외부적인 환경 실태를 교사와 수혜자인 아동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과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본 점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설문지에서 각 문항이 무엇을 물어보기 위한 것이었는지 그 목적과 기준이 분류되지 않아 체계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웠고, 당연한 답을 요구하는 몇 개의 문항이 있어 아쉬웠다.

오인교(2003)는 “초등학교 특기 · 적성 지도를 통한 바이올린 능력 향상 방안”<sup>33)</sup>에서 바이올린을 교육하면서 아동의 독보력 향상과 바이올린 기초 연주기능을 신장시키는 교육방법을 살펴보았다. 독보력 향상을 위해 코다이 손 기호를 이용하였고, 바이올린 연주 기능 신장을 위한 바이올린 지도 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 이를 경기도 부천 소재 초등학교 3학년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적용하였으며, 적용 후 바이올린 연주기능의 발전 정도를 조

---

33) 오인교. (2003). 초등학교 특기 · 적성 지도를 통한 바이올린 능력 향상 방안. 석사학위논문,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하였다.

연구자가 제작한 바이올린 지도 프로그램 실시 후 결과 분석은 교사 관찰과 바이올린 학습 기록장과 개인별 성취카드를 바탕으로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작된 바이올린 지도 프로그램 운영으로 바이올린에 대한 호기심과 음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형성, 바이올린 연주 능력 향상을 이끌어냈다. 둘째, 코다이 손 기호를 활용한 결과 음악의 기초기능이 크게 향상되었다. 셋째, 소규모 발표회를 통한 연주활동이 학생들의 협동정신과 음악의 생활화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나 지역사회의 재정적 지원, 우리나라 아동에게 맞는 바이올린 교재 개발의 중요성, 다양한 수업도구 활용방안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코다이의 손 기호를 바이올린 지도에 활용하여 아동들의 독보력을 신장시켰다는 점이 새롭게 다가오기는 했으나 연구자가 제작한 바이올린 지도 프로그램은 교과서 제재곡을 지도곡으로 사용한 것 외에는 기존의 지도방법을 답습하는데 그쳐 아쉬웠다. 또한 바이올린 성취를 평가하는 기준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은데다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연구를 일반화시키는데 그 범위가 한정된다고 본다.

김상래(2004)는 “초등학교 특기 · 적성 교실에서 효과적인 그룹 바이올린 교수-학습활동”<sup>34)</sup>에서 현대음악 교수법과 바이올린 교수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바이올린 그룹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위주의 교수-학습활동을 개발하였다.

연구자가 제작한 교수-학습 지도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여러 가지 바이올린 교수법을 활용하여 그룹지도에서 효과적인 바이

---

34) 김상래. (2004). 초등학교 특기 · 적성 교실에서 효과적인 그룹 바이올린 교수-학습활동.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올린 연주의 기본자세를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둘째, 음악의 기본요소인 리듬과 음정을 학습하는데 있어 다양한 신체활동과 노래, 악기 연주를 활용하였다. 셋째, 학생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악학습에서 소홀하기 쉬운 음악적 창의력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넷째, 합주활동을 통하여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들은 악기 연주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신체적인 경직 완화, 창작 능력 개발, 듣기 능력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제작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실행하는데 있어 교사의 적극적인 역할과 청각적 학습 자료 제작의 필요성, 리듬과 가락 외에 음악적 표현의 지도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바이올린 특기 · 적성 수업에 있어서 단순히 바이올린 연주 기술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본질인 ‘소리’에 집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과 다양한 신체표현을 활용하여 곡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한 점, 연주활동 뿐만 아니라 악보의 읽기와 쓰기, 즉흥연주, 창작, 이론학습, 합주까지의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음악의 본질을 이해하고 음악적 창조력을 자극한 점이 장점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제작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현장에 체계적으로 적용해보지 않아 지도안의 효과성에 대해서 검증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웠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보다 구체적인 의미부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류수연(2003)은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을 위한 초급교재 모형 연구”<sup>35)</sup>에서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이 쉽게 바이올린 연주 기능을 습득하여 운지 이론을 익힐 수 있는 교재의 모형을 개발, 제시하였다.

---

35) 류수연. (2003).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을 위한 초급교재 모형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연구자가 제시한 교재 모형의 특성은 영상적 단계의 아동들이 바이올린 연주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이론적 지식을 전달하여 주고, 오선 악보를 보기 전에 막대악보와 선악보 등의 예비연습을 통하여 오선악보를 친숙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였다. 영상적 단계의 아동들이 시각적 자극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진, 그림, 색상을 많이 사용하였고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 보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였다. 또한 이론과 기악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구어체의 서술방식을 사용하여 아동들에게 친근감을 유도하였으며, 질문을 통한 문제 제기로 아동들의 상상력을 유도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바이올린 초급 교재를 분석하여 5-8세 바이올린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재를 개발한 것이다. 오선 악보를 잘 읽지 못하고 운지법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동들의 문제점을 해결해준 점은 장점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 연구 역시 개발한 교재를 현장에 체계적으로 적용해보지 않아 교재의 효과성에 대해서 검증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위의 선행연구를 고찰해 본 결과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을 위한 논문들로는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시한 논문과 교재 분석에 관한 논문들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하여 연구한 논문들은 운영방안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는데 연구의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이 직접적으로 아동의 음악적성과 음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서술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바이올린 교재를 분석하고 각 교본의 특징을 제시하여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에 맞는 교재와 지도안을 새롭게 개발한 논문들은 교재

개발 자체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실제 현장 학습자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새롭게 개발된 교재와 지도안이 실제 바이올린을 학습하고 있는 아동들의 음악적성과 음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다.

본 논문은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시한 논문에서 설문지 제작과 이론적 배경을, 교재 분석에 관한 논문에서는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 도구 제작에 참고하여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이 아동들의 음악적성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연구하였다.

###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 1. 연구 대상

연구의 이론을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와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를 실시할 표집 대상을 비확률적 표집방법 중의 하나인 의도적 표집을 사용하여 선별하였다. 의도적 표집은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전집을 잘 대표하리라고 믿는 사례들을 의도적으로 표집하는 방법이다. 연구의 변수를 줄이기 위해 제주도 제주시에 있는 27개 초등학교 중 같은 교사의 지도 하에 3년 이상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을 실시하고, 같은 교재를 학습하고 있으며, 유동적 음악적성 단계(Developmental Music Aptitude)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아동들이 일정 기간 꾸준히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을 받아온 2개 초등학교를 표집하였다.

따라서 제주도 제주시 D초등학교에서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을 받고 있는 3학년 어린이 33명과 H초등학교의 3학년 24명, 총 5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의 연령은 모두 9세이며, 전체 대상자 57명 중 남학생이 11명, 여학생이 46명으로 여학생의 인원이 더 많았다. 연구 대상 아동들의 학교 및 성별에 따른 인적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학교 및 성별에 따른 연구 대상 분포

	남	여	합계
D 초등학교	6	27	33
H 초등학교	5	19	24
합계	11	46	57

연구 대상 아동들이 특기 · 적성 수업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바이올린 주교재는 시노자키 교본이었으나 각 아동들의 난이도는 달랐다. 난이도에 따른 연구 대상 분포도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시노자키 교본 난이도에 따른 연구 대상 분포

	시노자키1	시노자키2	시노자키3	시노자키4	합계
D 초등학교	2	16	11	4	33
H 초등학교	3	10	8	3	24
합계	5	26	19	7	57

## 2. 연구 도구

연구도구는 현경실의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와 본 연구자가 개발한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 음악적 환경과 레슨 기간, 학습에 대한 흥미도 등 사전 조사를 하기 위하여 제작한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 1)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

연구대상의 음악적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현경실(2004)이 개발한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를 사용하였다. 이는 한국 학생들의 음악적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서양 음악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의 음악적성도 진단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검사의 개요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의 개요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는 현경실이 6년의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음악적성 검사로 우리나라 문화에 사는 한국 학생들만을 위해 만들어졌다. 9세 이상의 정상인이라면 누구나 실시 가능한 음악적성 검사로 단순 필기검사가 아닌 듣기 검사이다. 또한 음악을 배운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음악적성도 측정할 수 있고, 개인은 물론 그룹으로 실시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의 하위검사는 리듬과 가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항 수는 리듬과 가락 각각 30문항, 총60문항이다. 총 검사시간은 22분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음악적성을 짚 수 있어 편리하다. 본 연구에서는 원점수만 사용하였다. 원점수는 맞은 문항에 부여된 배점을 단순 합산한 점수

로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의 경우 총 60문항이므로 문항 당 1점씩 합하면 총 60점 만점이 된다.

## (2)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의 내용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의 하위검사는 리듬 검사와 가락 검사인데, 이는 여러 선행연구의 조사와 실험 끝에 리듬과 가락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지었기 때문이다. 이들 각 검사는 30문항씩 총 60문항으로 서양음악과 국악의 비율이 약 2:1로 이루어져 있다. 답안지양식은 <부록 1>에 수록하였다.

### 가. 리듬 검사<sup>36)</sup>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에서는 리듬의 개념을 “박자(강약 포함)의 개념을 포함한 길고 짧은 음의 모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 음악 부분에서 한국의 장단 개념을 고려하여 악센트를 포함시켰다.

예비박이 연주된 문항의 신뢰도가 더 높다는 실험결과를 고려하고, 피험자들의 박자감을 돕기 위해 각 문항 처음에 타악기 소리로 한 마디 길이의 예비박이 주어진 후 본 문항이 시작된다. 리듬 검사의 각 문항은 두 마디의 리듬패턴이 사용되었고, 한 문항에서는 두 마디의 리듬패턴 두 개가 연주된다. 피험자들은 두 마디로 된 두 개의 리듬패턴을 듣고 ‘같은가’, ‘다른가’를 구별하도록 되어있다. 리듬 검사는 3/4, 4/4, 6/8, 12/8박자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4, 4/4박자는 4분음표 하나가 1분에 90의 속도로 연주되었으며, 6/8박자는 점4분음표 하나가 1분에 70, 12/8박자는 1분에 80의 속

---

36) 현경실. (2004). 전게서. p.43-44.

도로 연주되었다.

서양 음악과 한국 음악의 비율은 2:1로 서양 음악이 20문항, 국악이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악 문항은 12/8박자로 이루어져 있고, 국악 문항에서는 서양 음악과 다른 국악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국악적인 악센트를 넣어 문항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 나. 가락 검사<sup>37)</sup>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에서 가락 검사는 리듬의 요소를 제외한 “음감”에 중점을 둔 것으로 리듬의 요소가 배제된 똑같은 길이의 5개의 음이 사용되었고, 이 5개의 음이 한 패턴이다. 한 문항은 한 쌍의 가락 패턴으로 되어 있고, 피험자들은 리듬 검사와 같이 한 문항에서 한 쌍의 가락 패턴을 듣고 ‘같은가’, ‘다른가’를 구별하는 것이다. 가락 검사는 서양 음악이 22문항, 한국 음악이 8문항으로 되어 있다. 서양 음악은 장조와 단조의 음계가 사용되었고, 한국 음악은 한국의 오음음계가 사용되었다. 또한 가락검사는 17문항이 처음 두 음이 올라가는 패턴이고, 나머지 13문항은 처음 두 음이 내려가는 패턴으로 구성되었다.

### 2)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

연구 집단의 바이올린 성취도를 검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한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개발된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는 현장에서 바이올린 특기 · 적성 수업을 하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과 바이올

---

37) 상계서. p.45-46.

린 특기 · 적성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 김애자<sup>38)</sup>의 ‘유아용 음악능력 측정 도구’, 강석순<sup>39)</sup>의 ‘가창학습에 대한 음악성취도 검사’를 참고하였다. 이를 지도교수의 지도와 연구를 통해서 연구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다.

제작된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는 연구 집단에서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시노자키 교본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상(上), 중(中), 하(下)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된 세 가지 평가도구를 리듬, 가락, 음악적 표현의 세 가지 평가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는데,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개요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개요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는 연구 대상 아동들이 주교재로 학습하고 있는 시노자키 교본의 난이도에 따라 상(上), 중(中), 하(下)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즉, 시노자키 1권을 배우고 있는 아동들은 연구 집단의 학습 진도가 하(下)인 그룹의 성취도 평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시노자키 2권과 3권을 배우고 있는 아동들은 연구 집단의 학습 진도가 중(中)인 그룹의 성취도 평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시노자키 4권을 배우고 있는 아동들은 연구 집단의 학습 진도가 상(上)인 그룹의 성취도 평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난이도에 따라 만든 세 가지의 평가도구를 리듬, 가락, 음악적 표현의 세 가지 평가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각 영역을 5단계로 나누었다. 한 단계에 1점씩 배분하여 세 영역에서 모두 만점이 나오면 총 15점의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

38) 김애자. (2003). 유아용 음악능력 측정 도구의 타당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유아교육대학원.

39) 강석순. (2004). 한국음악적성검사(KMAT)의 타당도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평가도구의 세 영역은 리듬, 가락, 음악적 표현이다. 리듬과 가락은 음악의 기본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필수 구성 요소이므로 평가 기준에 넣었고, 바이올린 활쓰기와 자세, 다이내믹의 표현, 프레이즈의 이해 등을 알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음악적 표현을 한 영역으로 포함시켰다. 각 평가영역의 하위요소는 난이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리듬, 가락, 음악적 표현의 세 가지 평가영역 중 리듬의 경우 악곡 전체의 리듬이 정확하면 5점, 악곡 전체 중 1마디의 리듬이 정확하지 않으면 4점, 2마디의 리듬이 정확하지 않으면 3점, 3마디의 리듬이 정확하지 않으면 2점, 4마디 이상의 리듬이 정확하지 않으면 1점을 주는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가락과 음악적 표현의 경우 네 가지의 하위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요소를 모두 지키면 5점, 그 중 한 가지의 요소를 지키지 못하면 4점, 두 가지의 요소를 지키지 못하면 3점, 세 가지의 요소를 지키지 못하면 2점,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지키지 않으면 1점을 주는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 (2)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내용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는 연구 대상 아동들이 주교재로 학습하고 있는 시노자키 교본의 난이도에 따라 상(上), 중(中), 하(下) 세 가지로 구성하여 각각의 난이도에 따라 평가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연구 집단의 학습 진도가 하(下)인 그룹의 바이올린 성취도 평가 기준

- 시노자키 교본 1권

연구 집단의 학습 진도가 하(下)인 그룹의 바이올린 성취도 평가 기준은 리듬, 가락, 음악적 표현의 세 가지 평가 영역을 포함한다.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를 실시할 때 현재 배우고 있는 교재곡과 자유곡으로 나누었는데, 같은 교재와 같은 난이도일지라도 연구 대상 아동들의 진도가 모두 달라 일괄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리듬의 경우 특별한 하위 요소 없이 악곡 전체의 리듬이 정확하면 5점, 악곡 전체 중 1마디의 리듬이 정확하지 않으면 4점, 2마디의 리듬이 정확하지 않으면 3점, 3마디의 리듬이 정확하지 않으면 2점, 4마디 이상의 리듬이 정확하지 않으면 1점을 주는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가락의 평가기준은 ‘악곡의 윤곽선이 명료하다’, ‘시작음의 음정이 정확하다’, ‘도약음정이 정확하다’, ‘순차로 진행되는 음정이 정확하다’의 네 가지 하위요소를 포함한다. 바이올린이라는 악기의 특성상 프렛이 없는 관계로 아동들이 정확한 음정을 찾아내기가 무척 어려운 악기이다. 포지션을 통해서 정확한 음정내기가 가능해지는데, 제1포지션에서 모든 악곡을 다루는 시노자키 1권을 배우고 있는 아동들의 경우 정확한 음정내기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악곡의 윤곽선이 어떤 곡인지 평가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4개의 하위요소를 만들었다.

음악적 표현의 평가기준은 ‘바른 자세로 연주한다’, ‘자신감있고 명확한 소리를 낸다’, ‘교사가 지시한 활쓰기를 지켜 연주한다’, ‘악곡에 맞는 적절한 빠르기로 연주한다’의 네 가지 하위요소를 포함한다. 각각의 하위요소가 선택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세’의 경우 올바른 자세와 손모양 없이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음악적 표현의 하위요소로 선택

되었다. 특히 바이올린은 자세가 불편한 악기인데다가 바이올린 잡는 법의 좋고 나쁨은 미래의 연주기술 숙달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중요한 평가요소인 것이다. 둘째, ‘자신감 있고 명확한 소리’가 음악적 표현의 하위요소로 선택된 이유는 바른 자세, 활쓰기와 직결되는 복합적인 요소인데다가 매끄러운 소리를 내기 위한 기본단계로서 바이올린 초보자들에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셋째, ‘교사가 지시한 활쓰기’를 지켜 연주하는지가 음악적 표현의 하위요소로 선택된 이유는 바이올린 연주에 있어서 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바이올린 음색이 조금씩 달라지는데다가 악곡에 대한 프레이즈의 이해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활쓰기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한 기본 요소로 매우 중요한 평가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시노자키 1권을 배우는 아동들의 경우 프레이즈에 어울리는 활쓰기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교사가 지시하거나 교재에 표시된 것을 원칙으로 평가하였다. 넷째, ‘악곡에 맞는 적절한 빠르기로 연주’하는지가 음악적 표현의 하위요소로 선택된 이유는 악곡을 전체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이해도를 평가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초보자들의 경우 악기를 연주하는 자세와 악보 의존도가 높아 악곡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처음의 연주 속도를 악곡의 끝까지 유지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전체적인 악곡의 빠르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연주의 기본이 되므로 음악적 표현의 하위요소로 포함시켰다. 시노자키 1권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빠르기 용어가 악곡에 표시되기 시작하지만, 빠르기 용어 학습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교사가 지시한 빠르기로 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평가하였다.

연구 집단의 학습 진도가 하(下)인 그룹의 바이올린 성취도 평가 기준은 <표 3>과 같다.

<표 3> 학습 진도가 하(下)인 그룹의 바이올린 성취도 평가 기준

점수	평가 영역		
	리듬	가락	음악적 표현
5	악곡 전체의 리듬이 정확하다.	1) 악곡의 윤곽선이 명료하다. 2) 시작음의 음정이 정확하다. 3) 도약음정이 정확하다. 4) 순차로 진행되는 음정이 정확하다.	1) 바른 자세로 연주한다. 2) 자신감 있고 명확한 소리를 낸다. 3) 교사가 지시한 활쓰기를 지켜 연주한다. 4) 악곡에 맞는 적절한 빠르기로 연주한다.
4	전체 악곡 중 1마디의 리듬이 정확하지 않다.	네 가지 요소 중 하나를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 중 하나를 지키지 못한다.
3	전체 악곡 중 2마디의 리듬이 정확하지 않다.	네 가지 요소 중 두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 중 두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
2	전체 악곡 중 3마디의 리듬이 정확하지 않다.	네 가지 요소 중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 중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
1	전체 악곡 중 4마디 이상의 리듬이 정확하지 않다.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지키지 못한다.

나. 연구 집단 진도가 중(中)인 그룹의 바이올린 성취도 평가 기준

- 시노자키 교본 2권과 3권

연구 집단의 학습 진도가 중(中)인 그룹의 바이올린 성취도 평가 기준은 학습 진도가 하(下)인 그룹의 바이올린 성취도 평가 기준과 마찬가지로 리듬, 가락, 음악적 표현의 세 가지 평가 영역을 포함한다. 주교재인 시노자키 2권과 3권을 학습하고 있는 아동들도 시노자키 1권을 학습하고 있는 아동처럼 교재곡 진도가 달랐고, 자유곡목을 정하는데 있어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일괄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리듬의 경우도 학습 진도가 하(下)인 그룹의 평가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특별한 하위 요소 없이 악곡 전체의 리듬이 정확하면 5점, 악곡 전체 중 1마디의 리듬이 정확하지 않으면 4점, 2마디의 리듬이 정확하지 않으면 3점, 3마디의 리듬이 정확하지 않으면 2점, 4마디 이상의 리듬이 정확하지 않으면 1점을 주는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가락의 평가기준은 ‘시작음의 음정이 정확하다’, ‘마지막 음의 음정이 정확하다’, ‘도약 음정이 정확하다’, ‘순차로 진행하는 음정이 정확하다’의 네 가지 하위요소를 포함한다. 연주 능력의 향상과 곡목의 난이도로 인해 학습 진도가 하(下)인 그룹과 달리 시작음의 음정 외에 마지막 음의 음정까지 평가하였고, 도약음의 음정이 많아져 이 부분을 엄밀히 평가하였다.

음악적 표현의 평가기준은 ‘바른 자세로 연주한다’, ‘악곡에서 지시한 빠르기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연주한다’, ‘셈여림과 나타냄 말을 의식하여 표현한다’, ‘교사가 지시한 활쓰기를 지켜 연주한다’의 네 가지 하위요소를 포함한다. 학습 진도가 하(下)인 그룹의 성취도 평가 기준과 비교하여 두 가지 요소가 달라졌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악곡에서 지시한 빠르기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연주하는 것’을 음악적 표현의

하위요소로 포함시킨 이유는 시노자키 1권 마지막 부분에서 표시된 빠르기 용어가 2권과 3권에 가서는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 진도가 하(下)인 그룹의 평가기준인 ‘악곡에 맞는 적절한 빠르기로 연주한다’에서 더 나아가 연구 대상 아동 스스로 다양한 빠르기 용어를 인식하고 있는지, 악곡에 표시된 빠르기말 속도를 유지하며 악곡 전체를 연주할 수 있는지와 같은 좀 더 고차원적인 표현 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둘째, ‘셈여림과 나타냄 말을 의식하여 표현’하고 있는지를 음악적 표현의 하위요소로 포함시킨 이유는 시노자키 1권과 달리 시노자키 2권과 3권에서는 다양한 악상기호와 셈여림 기호와 같은 다이내믹의 표현이 중요한 악곡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 대상 아동 스스로 다양한 악상기호와 셈여림 기호를 숙지하면서 시험 악곡을 연주하는지를 평가하였다.

연구 집단의 학습 진도가 중(中)인 그룹의 바이올린 성취도 평가 기준은 <표 4>와 같다.

<표 4> 학습 진도가 중(中)인 그룹의 바이올린 성취도 평가 기준

점수	평가요소		
	리듬	가락	음악적 표현
5	악곡 전체의 리듬이 정확하다.	1) 시작음의 음정이 정확하다 2) 마지막 음의 음정이 정확하다. 3) 도약음정이 정확하다 4) 순차로 진행되는 음정이 정확하다.	1) 바른 자세로 연주한다. 2) 악곡에서 지시한 빠르기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연주한다. 3) 셈여림과 나타냄말을 의식하여 표현한다. 4) 교사가 지시한 활쓰기를 지켜 연주한다.
4	전체 악곡 중 1마디의 리듬이 정확하지 않다.	네 가지 요소 중 하나를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 중 하나를 지키지 못한다.
3	전체 악곡 중 2마디의 리듬이 정확하지 않다.	네 가지 요소 중 두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 중 두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
2	전체 악곡 중 3마디의 리듬이 정확하지 않다.	네 가지 요소 중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 중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
1	전체 악곡 중 4마디 이상의 리듬이 정확하지 않다.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지키지 못한다.

다. 연구 집단 진도가 상(上)인 그룹의 바이올린 성취도 평가 기준

- 시노자키 교본 4권

연구 집단의 학습 진도가 상(上)인 그룹의 바이올린 성취도 평가 기준은 학습 진도가 중(中)과 하(下)인 그룹의 바이올린 성취도 평가 기준과 마찬가지로 리듬, 가락, 음악적 표현의 세 가지 평가 영역을 포함한다. 주교재인 시노자키 4권을 학습하고 있는 아동들도 시노자키 1, 2, 3권을 학습하고 있는 아동처럼 교재곡 진도가 달랐고, 자유곡목을 정하는데 있어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일괄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리듬의 경우도 학습 진도가 중(中)과 하(下)인 그룹의 평가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특별한 하위 요소 없이 악곡 전체의 리듬이 정확하면 5점, 악곡 전체 중 1마디의 리듬이 정확하지 않으면 4점, 2마디의 리듬이 정확하지 않으면 3점, 3마디의 리듬이 정확하지 않으면 2점, 4마디 이상의 리듬이 정확하지 않으면 1점을 주는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가락의 평가기준의 경우 교재인 시노자키 교본 4권이 곡의 길이와 난이도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를 보일 뿐 특별한 가락 기준이 없어서 학습 진도가 중(中)인 그룹과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였다.

음악적 표현의 평가기준은 ‘바른 자세로 연주한다’, ‘부드럽고 맑은 음색으로 연주한다’, ‘프레이즈에 따라 적절한 활쓰기를 한다’, ‘셈여림, 나타냄말을 정확히 사용하여 창의적으로 악곡을 표현한다’의 네 가지 하위요소를 포함한다. 학습 진도가 하(下)인 그룹의 성취도 평가 기준과 비교하여 세 가지 요소가 심화되었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드럽고 맑은 음색으로 연주하는 것’이 음악적 표현의 하위요소로 선택된 이유는 시노자키 4권에 이르면 정확한 음정과 자신감 있고 명확한 소리뿐만 아니라 곡에 따른 악기의 음색 변화가 악곡의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둘

째, ‘프레이즈에 따라 적절한 활쓰기’가 음악적 표현의 하위요소로 포함된 이유는 교사가 지시한 활쓰기를 지켜 연주하는 시노자키 1, 2, 3권을 학습하는 아동과 달리 활쓰기에 따른 소리와 프레이즈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시험곡에서 적절한 위치에서 숨을 쉬고 악곡의 특징에 맞는 프레이징을 살려 연주하는 능력을 평가하였다. 셋째, ‘셈여림, 나타냄 말을 정확히 사용하여 창의적으로 악곡을 표현하는 것’이 음악적 표현의 하위요소로 포함된 이유는 교재에 지시된 표현뿐만 아니라 연주곡을 해석하는 아동의 창의성을 평가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학습 진도가 중(中)인 그룹의 평가 기준에서도 강조되어 온 내용이지만 셈여림과 나타냄 말을 의식하여 표현력 있게 연주하는 데 더하여 창의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연구 집단의 학습 진도가 상(上)인 그룹의 바이올린 성취도 평가 기준은 <표 5>와 같다.

<표 5> 학습 진도가 상(上)인 그룹의 바이올린 성취도 평가 기준

		평가요소		
점수	리듬	가락	음악적 표현	
5	악곡 전체의 리듬이 정확하다.	1) 시작음의 음정이 정확하다 2) 마지막 음의 음정이 정확하다. 3) 도약음정이 정확하다 4) 순차로 진행되는 음정이 정확하다.	1) 바른 자세로 연주한다. 2) 부드럽고 맑은 음색으로 연주한다. 3) 프레이즈에 따라 적절한 활쓰기를 한다. 4) 셈여림, 나타냄 말을 사용하여 창의적으로 악곡을 표현한다.	
4	전체 악곡 중 1마디의 리듬이 정확하지 않다.	네 가지 요소 중 하나를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 중 하나를 지키지 못한다.	
3	전체 악곡 중 2마디의 리듬이 정확하지 않다.	네 가지 요소 중 두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 중 두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	
2	전체 악곡 중 3마디의 리듬이 정확하지 않다.	네 가지 요소 중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 중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	
1	전체 악곡 중 4마디 이상의 리듬이 정확하지 않다.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지키지 못한다.	

### 3) 설문지

연구 대상 아동들에 대한 음악적 환경과 레슨 기간, 학습에 대한 흥미도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을 통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 작성은 현장에서 바이올린 특기 · 적성 수업을 하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과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의 설문, 한현주<sup>40)</sup>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이를 지도교수의 지도와 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실제 학생들에게 배부되어 조사된 설문지는 <부록 2>에 수록하였다. 각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 1 : 연구 대상 아동들의 음악 감상 여부가 음악적성 발달과 바이올린 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일상생활에서의 의도적인 음악 감상의 여부를 물어보았다.

질문 2 :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에 대한 아동 스스로의 참여도가 음악적성 발달과 바이올린 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 수강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인물에 대해 물어보았다.

질문 3 : 가정에서 아동의 음악적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음악적성 발달과 바이올린 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아동들의 음악적 행위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을 물어보았다.

질문 4 : 가정에서의 음악적 환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악기를 연주하는 가족의 수를 물어보았다.

질문 5 :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의 수강 기간과 음악적성 및 바이올린

---

40) 한현주. (2004). 전게서.

성취도가 정비례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수강 기간을 물어보았다.

질문 6 : 수업 시간 외의 연습이 음악적성 발달과 바이올린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개인적인 바이올린 연습 시간을 물어보았다.

질문 7 : 바이올린 연주에 대한 만족도가 음악적성 발달과 바이올린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바이올린 연주에 대한 선호도를 물어보았다.

질문 8 : 지도 교사의 수업 내용과 수업 방법 및 바이올린 교본 선택의 적절성, 학교의 지원 등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의 외부적인 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 수업의 만족도를 물어보았다.

### 3. 연구 절차

본 연구자는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과 음악적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현경실의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와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음악적 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사전에 설문을 조사하여 이들의 결과를 종합, 분석하였다. 이들 검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 1) 선행연구

연구에 착수하기 전 단계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결론이 도출된 여러 학위 논문과 학술지에 실린 연구 논문, 국내와 해외 단행본 등을 통하여 선행 연

구를 실시하였다.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 연구에서 이론적 배경과 설문지 작성을, 음악적성과 음악 성취도 연구에서는 연구 도구 및 과정, 방법을 참고할 수 있었다.

## 2)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와 설문지 제작

바이올린 교육의 성취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는 2005년 6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현장에서 바이올린 특기 · 적성 수업을 하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과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 김애자<sup>41)</sup>의 ‘유아용 음악능력 측정도구’, 강석순<sup>42)</sup>의 ‘가창학습에 대한 음악 성취도 검사’를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최대한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본 연구 대상이 아닌 가집단(假集團)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사전 실험을 통해 개발되었다.

연구대상 아동들의 음악적 환경이 음악적성과 바이올린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2005년 10월부터 11월까지 현장에서 바이올린 특기 · 적성 수업을 하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과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의 설문과 한현주<sup>43)</sup>의 연구를 참고하여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 3)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와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 실시

### (1) 연구 대상 표집

비확률적 표집방법인 의도적 표집에 의해 제주도 제주시에 있는 27

---

41) 김애자. (2003). 전계서.

42) 강석순. (2004). 전계서.

43) 한현주. (2004). 전계서.

개 초등학교 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2개 초등학교를 표집하였다.

- ① 같은 교사의 지도 하에 3년 이상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을 실시한 학교.
- ② 같은 교재(개정판 시노자키 바이올린 교본)를 학습하고 있는 학교.
- ③ 유동적 음악적성 단계(Develpmental Music Aptitude)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아동들이 일정 기간 꾸준히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을 받아온 학교.

## (2) 검사 일시 및 장소

본 검사는 제주도 제주시 D 초등학교와 H 초등학교에서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 57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D 초등학교의 검사일시는 2005년 12월 5일 오후 4시였고, H 초등학교의 검사일시는 12월 6일 오후 4시였다.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의 경우 피험자들의 컨디션을 고려하여 오후보다는 오전 시간대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의사항이 있었지만 학교 정규 수업 시간으로 인해 오전에 검사를 실시하는데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특기 · 적성 수업시간인 오후 4시에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수업시간 50분 내에 모든 검사를 시행하기에 무리가 있어 사전에 지도 교사와 학부모의 양해를 구해 3시간에 걸쳐 검사를 시행할 수 있었다. 본 검사는 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검사의 정확성을 위해 검사 실시시의 잡음 차단을 위해 검사 전에 충분한 주의를 주었고, 실시장소 밖의 소음 차단을 위해 장소 선정에 배려를 하였다. 구체적인 검사 일시와 장소는 <표 6>과 같다.

<표 6> 검사 일시 및 장소

	날짜	시간	장소
D 초등학교	2005년 12월 5일	오후 4시	시청각실
H 초등학교	2005년 12월 6일	오후 4시	음악실

### (3) 검사방법

본 검사는 설문지 답안 작성,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 검사,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설문지 답안 작성은 총 10분에 걸쳐 이루어졌고, 연구 대상 아동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문항의 경우 손을 들어 질문하도록 하였다.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는 검사 실시의 주의사항<sup>44)</sup>에 따라 검사 실시 전에 답안지를 나누어 주어 이름을 쓰게 했고, 아동들이 검사 실시 방법을 충분히 숙지했는지 예제 문제를 통해 확인한 후 본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피험자로 하여금 잘 모르는 문항이 나올 때는 답을 추측하지 말고 그 문항을 비워두게 했으며, 시험에 따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검사 시간은 설명시간과 답안지 회수시간을 포함하여 총 30분이 걸렸다.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레슨이 완료된 교재곡 1곡과 아동이 원하는 자유곡 1곡, 총 2곡을 평가하였다. 자유곡의 경우 현재 배우고 있는 교재곡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선택하게 하였다. 검사 실시시의 효과적인 잡음 차단을 위해 검사를 마친 아동은 귀가하게 하였다.

44) 현경실. (2004). 전게서. p.49-51.

#### (4) 검사 장비 및 도구

공정한 채점을 하기 위하여 학생이 연주하는 모든 평가 과정의 소리를 녹음하기 위한 MP3와 바이올린 연주 자세, 활쓰기를 확인하기 위한 디지털 캠코더,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를 실시하기 위한 CD 플레이어와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 답안지, 설문지 등이 사용되었다.

#### (5) 채점방법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 답안 결과는 표계산 프로그램인 엑셀로 입력한 후 통계 프로그램인 SPSS 12.0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문항변별도, 난이도, 신뢰도, 상관관계 등을 알아보았다.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 결과는 바이올린 학습경험이 있는 음악교육전공자 2명과 본 연구자가 검사과정을 촬영한 디지털 캠코더와 MP3 소리 파일을 통해 채점하였다. 채점 기준은 본 연구자가 개발한 평가기준을 사용하였고, 결과의 신뢰도를 위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외부요인을 통제하며 채점하였다. 채점된 점수는 표계산 프로그램인 엑셀로 입력한 후 통계 프로그램인 SPSS 12.0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채점자간의 신뢰도, 음악적성과의 상관관계 등을 산출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표계산 프로그램인 엑셀을 이용하여 질문지 각 문항에 관한 빈도를 산출하고 백분율로 환산하여 응답한 아동의 견해를 분석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인 SPSS 12.0을 사용하여 음악적성과 바이올린 성취도와의 상관관계, 질문지 각 문항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 4. 연구 분석 방법

본 연구의 통계 분석은 SPSS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차이 검증의 유의 수준은  $p < .01$ 로 하였다.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는 세 명의 평가자가 채점을 하였으므로 평가자간의 채점이 신뢰성과 일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채점자간의 신뢰도를 크론바흐 알파계수로 구했다.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과 음악적성의 상관관계, 설문지 문항과 음악적성, 바이올린 성취도와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로 결과를 얻었다.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 점수는 리듬과 가락 각각 30점 만점, 총 60점 만점으로 계산하였으며,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 점수는 리듬, 가락, 음악적 표현에 대한 점수가 각 5점씩 총 15점 만점으로 계산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1.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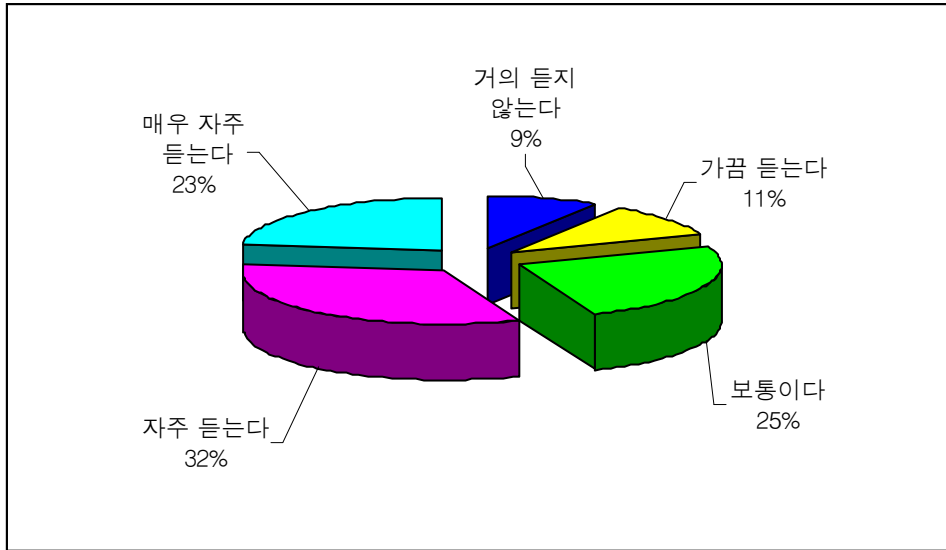
#### 1) 문항 분석

본 연구는 제주도 제주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n=57)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 아동들에 대한 음악적 환경과 레슨 기간, 학습에 대한 흥미도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을 통해 사전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일상생활에서의 의도적인 음악 감상 여부

연구 대상 아동들의 음악 감상 여부가 음악적성 발달과 바이올린 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일상생활에서의 의도적인 음악 감상의 여부를 물어보았다. 조사 결과 평상시 음악을 ‘자주 듣는 아동’이 전체 비율이 32%(n=19)였고, ‘매우 자주 듣는 아동’은 23%(n=14)였다.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을 받고 있는 연구 대상 아동들 대부분이 평상시 음악을 자주 접하고 있었다. 이 비율을 원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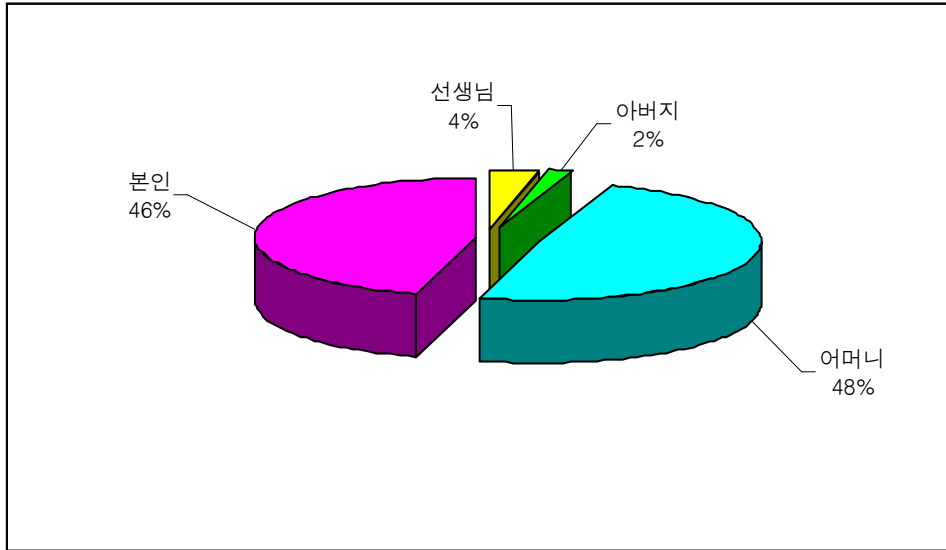
<그림 1> 일상생활에서의 의도적인 음악 감상 여부



(2)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 수강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인물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에 대한 아동 스스로의 참여도가 음악적성 발달과 바이올린 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 수강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인물에 대해 물어보았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48%(n=28)의 아동들이 어머니의 권유에 의해 바이올린을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스로 배우고 싶어서 바이올린을 배우는 아동들이 46%(n=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 아동들 대부분이 어머니의 결정과 본인 스스로의 결정으로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라 그런지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에 대한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을 원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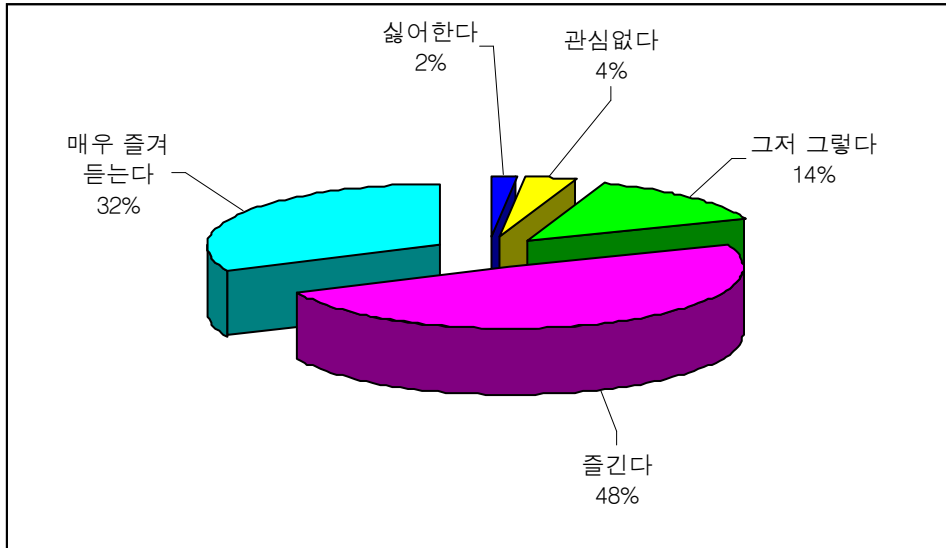
<그림 2>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 수강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인물



### (3) 아동들의 음악적 행위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

가정에서의 음악적 환경을 살펴보기 위한 질문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들의 연주에 대해 즐거워하고 지원하는 가족’이 48%(n=28)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가족’도 32%(n=18)나 되었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아동들의 연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들의 경우 가족의 지원과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을 원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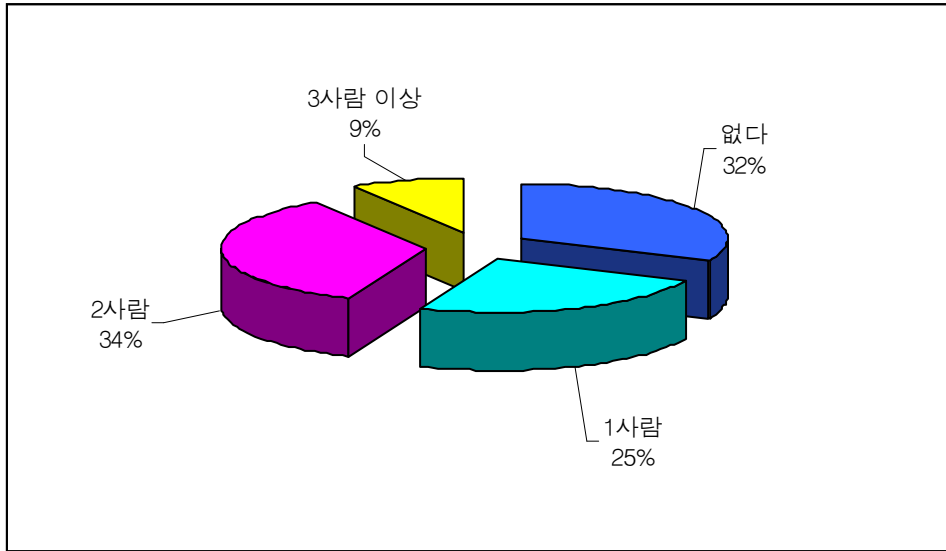
<그림 3> 아동들의 음악적 행위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



(4) 악기를 연주하는 가족의 수

가정에서의 음악적 환경을 살펴보기 위한 질문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가족의 수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본인을 제외하고 ‘가족 중에서 2명 이상이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고 답한 경우가 전체 비율 중 34%(n=2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사람인 경우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을 받고 있는 연구 대상 아동들의 가정환경을 보면, 68%가 본인을 제외한 가족 중 1명 이상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을 원그래프로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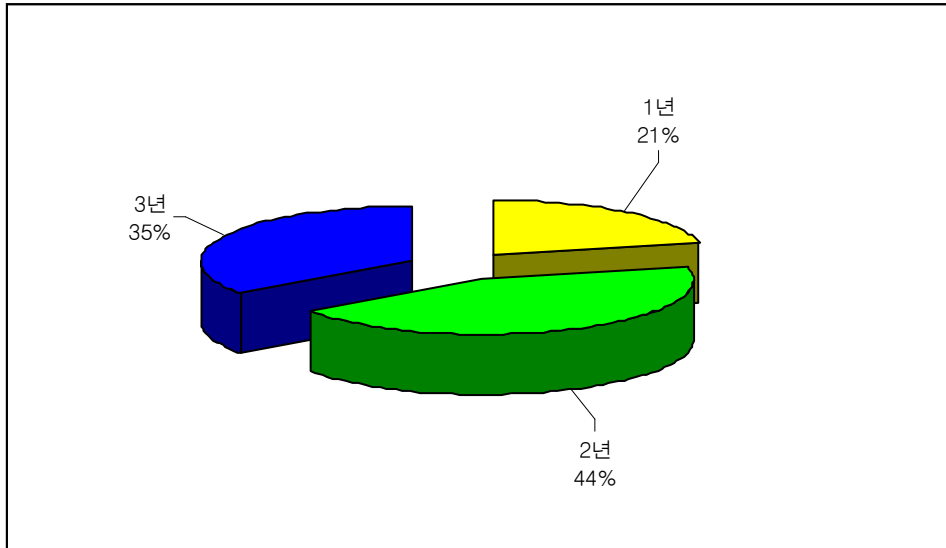
<그림 4> 악기를 연주하는 가족의 수



(5)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 수강 기간

연구 대상 아동들의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 수강 기간에 대한 분석결과는 2년 정도 수업을 받은 아동들이 44%(n=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년 정도 수업을 받은 아동들이다. 과반수이상의 아동들이 2년 이상 지속적으로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비율을 원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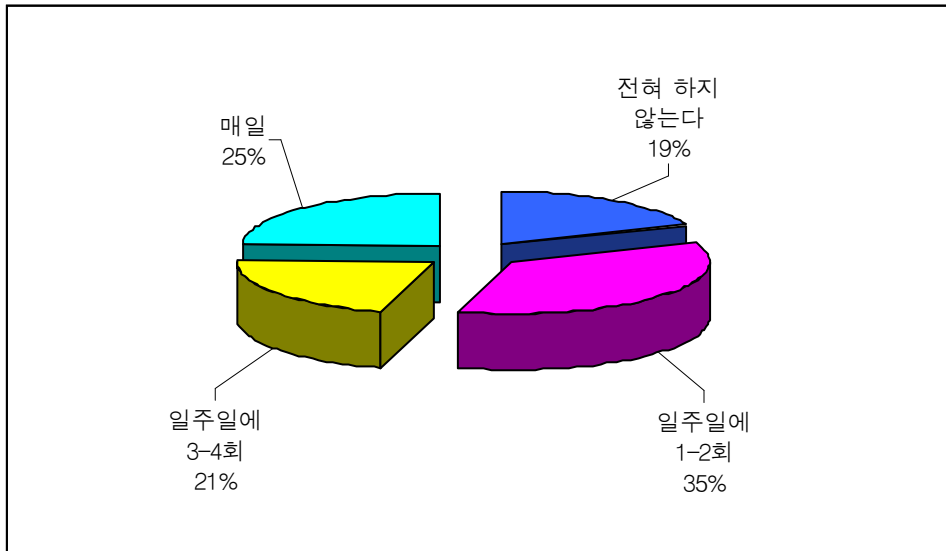
<그림 5>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 수강 기간



(6) 개인적인 바이올린 연습시간

연구대상 아동들의 개인적인 바이올린 연습시간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35%의 아동들이 '1주일에 1-2회 정도 연습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1%의 아동들의 경우는 '1주일에 3-4회 정도 연습한다'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아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자의든 타의든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을 받고 있는 연구 대상 아동들 81%가 수업시간 이외에 바이올린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을 원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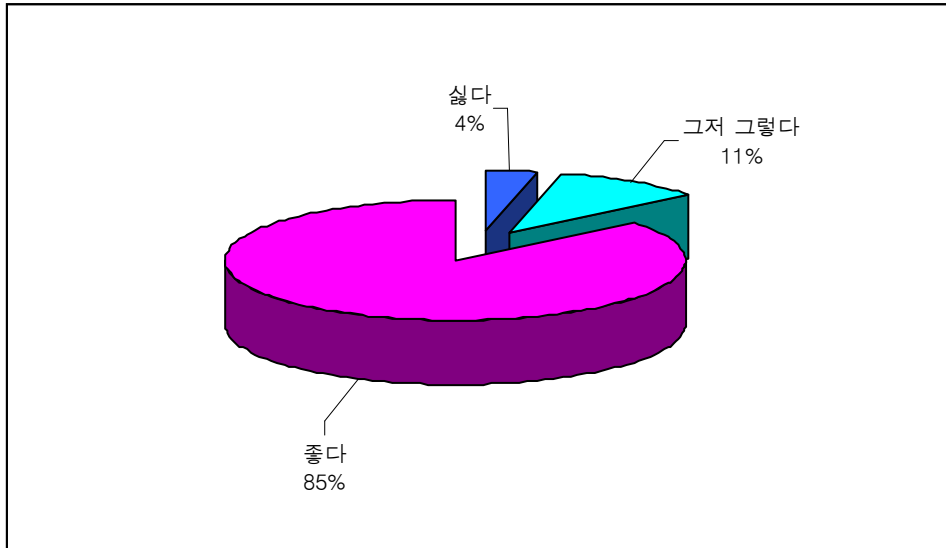
<그림 6> 개인적인 바이올린 연습시간



(7) 바이올린 연주에 대한 선호도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85%(n=49)의 아동들이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싫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4%(n=2)에 불과하여 대체로 바이올린 연주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비율을 원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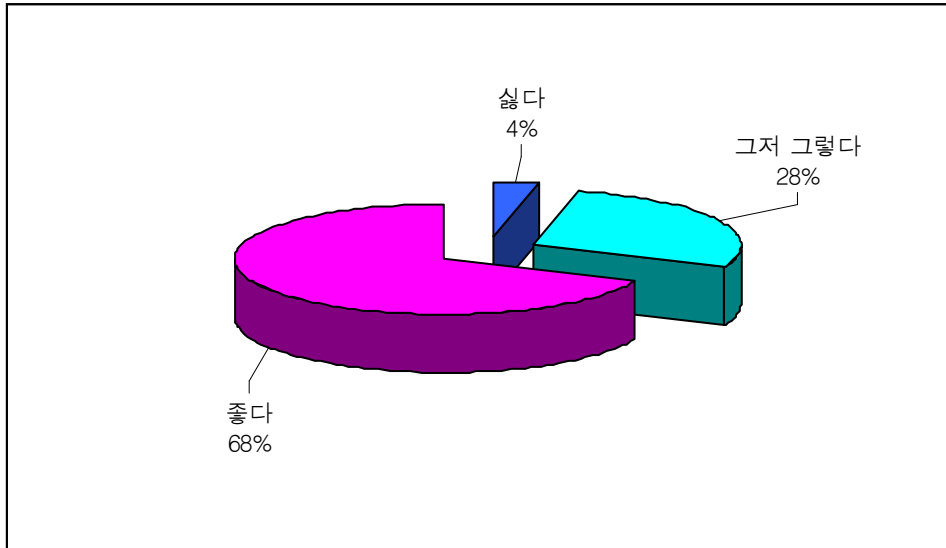
<그림 7> 바이올린 연주에 대한 선호도



(8) 바이올린 특기 · 적성 수업에 대한 만족도

바이올린 특기 · 적성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68%가 '재밌다', 28%는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4%만이 수업시간이 '재미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바이올린 특기 · 적성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비율을 원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 바이올린 특기 · 적성 수업에 대한 만족도



## 2) 설문 문항간의 상관관계 분석

설문 문항간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문항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유의미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적인 바이올린 연습시간’(설문 6번)이 ‘악기를 연주하는 가족의 수’(설문 4번)와 .47로 유의도  $p < 0.01$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 수강 기간’(설문 5번)과는 .43으로 유의도  $p < 0.01$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이올린 연주에 대한 선호도’(설문 7번)와도 .40으로 유의도  $p < 0.01$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로 나타내어보면 ‘개인적인 바이올린 연습시간’이 ‘악기를 연주하는 가족의 수’와는 22%,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 수강

기간'과는 19%, '바이올린 연주에 대한 흥미도'와는 16%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연구 대상 아동들의 '개인적인 바이올린 연습시간'이 '악기를 연주하는 가족의 수'(설문 4번)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을 수강한 기간'(설문 5번), '바이올린 연주 선호도'(설문 7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가정의 음악환경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연구대상 아동의 바이올린에 대한 관심과 흥미, 지속적인 훈련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설문 6번과 설문 4번, 5번, 7번의 상관관계

	설문 4번	설문 5번	설문 7번
설문 6번	.47**	.43**	.40**

가정의 음악환경이 연구대상 아동들의 바이올린에 대한 관심과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들의 음악적 행위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설문 3번)이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을 수강한 기간'(설문 5번)과는 .26으로 유의도  $p < 0.05$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바이올린 연주 선호도'(설문 7번)와는 .29로 유의도  $p < 0.05$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이올린 특기 · 적성 수업에 대한 만족도'(설문 8번)와도 .27로 유의도  $p < 0.05$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가정에서 아동들이 연주를 할 때 보여주는 가족의 태도'가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 수강 기간'과 '바이올린 연주 선호도', '바이올린 특기 · 적성 수업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결과는 가족의 아동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이 수업시간 이외에 아동의 바

이올린에 대한 흥미와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부모는 바이올린을 배우도록 레슨비를 주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할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과 인내로 학생들이 활동을 잘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를 도표화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설문 3번과 설문 5번, 7번, 8번의 상관관계

	설문 5번	설문 7번	설문 8번
설문 3번	.26*	.29*	.27*

‘바이올린 연주 선호도’(설문 7번)와 ‘일상생활에서의 의도적인 음악 감상 여부’(설문 1번)는 .56으로 유의도  $p < 0.01$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바이올린 특기 · 적성 수업의 만족도’(설문 8번)과는 .73으로 유의도  $p < 0.01$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로 나타내어 보면 ‘일상생활에서의 의도적인 음악 감상 여부’와는 32%, ‘바이올린 특기 · 적성 수업의 만족도’와는 54%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바이올린 연주 선호도’는 ‘일상생활에서 의도적인 음악 감상 여부’와 ‘바이올린 특기 · 적성 수업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설문 7번과 설문1번, 8번의 상관관계

	설문 1번	설문 8번
설문 7번	.56**	.72**

G

## 2.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의 분석결과

### 1)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의 평균과 표준편차

본 연구 집단의 한국 음악적성 검사(이하 KMAT) 검사 결과는 리듬 검사의 평균이 23.14이고 가락 점수의 평균이 24.56으로 리듬 점수보다 가락 점수의 평균이 조금 더 높았다. 이는 현경실(2004)<sup>45)</sup>이 조사한 초등학교 3학년의 평균 점수인 리듬 점수 19.67, 가락 점수 20.88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 집단에서 리듬 점수는 3.47, 가락 점수는 3.68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 집단의 음악적성 점수는 3학년 음악적성 검사의 평균치보다 약간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 집단의 KMAT 점수와 현경실이 학년별 규준을 만들기 위해 실험한 학생들의 KMAT의 점수와의 차이를 비교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KMAT의 평균과 표준편차 비교

		평균			표준편차		
		리듬	가락	합계	리듬	가락	합계
연구대상	3학년	23.14	24.56	47.70	5.15	4.96	9.34
KMAT	3학년	19.67	20.88	40.54	5.52	4.89	8.53

45) 상계서, p.99.

## 2)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의 신뢰도

신뢰도란 얼마나 정확하게 오차 없이 측정하고 있느냐와 관련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재검사법, 동형검사법, 반분신뢰도법, 문항 내적 합치도법 및 크론바흐의 알파계수법 등이 있다. 신뢰도 값은 -1~1사이에서 분포하며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 Alpha) 계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 집단의 KMAT 리듬 검사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84이고, 가락 검사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86이다. 본 연구 집단에서는 리듬과 가락의 신뢰도 차이가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현경실(2004)<sup>46)</sup>의 초등학교 3학년 평균 신뢰도인 리듬 .81, 가락 .79에 비교하여 보았을 때 본 집단이 리듬과 가락 모두 3학년 평균보다 신뢰도 점수가 높게 측정되었다. 특히 가락에서는 약 7점의 많은 차이가 있었다.

<표 11>은 연구대상 초등학교와 현경실의 실험점수를 비교한 것이다.

<표 11> KMAT의 신뢰도 비교

		리듬	가락
연구대상	3학년	.84	.86
KMAT	3학년	.81	.79

46) 상계서, p.101.

### 3)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의 문항난이도와 문항변별도

#### (1) KMAT의 문항난이도

문항난이도란 각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정답률을 %로 나타낸 것으로 각 문항의 어려운 정도를 나타낸 지수이다. 지수가 높을수록 쉬운 문항이 된다.<sup>47)</sup>

본 검사에서 문항난이도의 평균은 <표 13>에서와 같이 리듬 검사가 80.90%, 가락 검사가 81.77%로 전체 학생들에게 적당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가락 검사가 리듬 검사보다 더 쉬웠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리듬 검사에서는 6번이 가장 어려운 문항이었고, 가락 검사에서는 20번이 가장 어려운 문항으로 나타났다.

문항 난이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리듬 검사에서 난이도가 90%이상의 문항은 3개였고, 80~89%의 문항은 10개, 70~79%는 8개 문항, 60~69%는 5개 문항, 60% 미만은 3개 문항이었다. 가락 검사에서는 난이도가 90%이상의 문항이 8개, 80~89%는 13개 문항, 70~79%는 4개 문항, 60~69%는 3개 문항, 60% 미만의 문항은 2개였다. <표 12>는 학년별 문항난이도의 분포를 문항수로 나타낸 것이다.

---

47) 상계서, p.101.

<표 12> 학년별 문항난이도 분포

	리듬	가락
90%이상	3	8
80~89%	10	13
70~79%	8	4
60~69%	5	3
60%미만	3	2

<표 13> KMAT의 문항난이도

KMAT 문항	리듬	가락
1	94.7	52.6
2	94.7	82.5
3	89.5	98.3
4	82.5	93.0
5	75.4	91.2
6	38.6	89.5
7	75.4	89.5
8	80.7	91.2
9	66.7	64.9
10	70.2	73.7
11	82.5	84.2
12	79.0	64.9
13	75.4	91.2
14	87.7	91.2
15	86.0	73.7
16	56.1	82.5
17	86.0	91.2
18	79.0	82.5
19	68.4	86.0
20	73.7	49.1
21	66.7	77.2
22	66.7	87.7
23	93.0	59.7
24	68.4	89.5
25	89.5	86.0
26	57.9	93.0
27	87.7	77.2
28	80.7	87.7
29	79.0	86.0
30	82.5	89.5
평균	80.9	81.7

## (2) 문항변별도

문항변별도는 문항이 피험자를 변별하는 정도를 수치<sup>48)</sup>로 나타낸 것으로 변별력이 높은 문항에서는 높은 능력의 피험자가 정답을 맞추고, 낮은 능력의 피험자는 오답을 할 가능성이 크다. 문항변별도 지수에 의한 문항 양호도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Ebel&Frisbie(1991)는 .40 이상을 매우 좋은 문항, .30~.39를 상당히 좋으나 개선될 여지가 있는 문항, .20~.29를 약간 좋은 문항으로서 개선될 필요가 있는 문항, .19 이하를 별로 좋지 않은 문항으로서 버려야 하거나 수정되어야 하는 문항 등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문항변별도가 .19이하이면 나쁜 문항인 것으로 분류하였으나, 소규모 교실 상황에서는 문항변별도가 +값이면 무난한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sup>49)</sup>

본 연구 결과인 문항변별도를 보면 변별력이 있는 문항이라고 말하는 변별도 지수 .20보다 낮은 문항은 <표 14>와 같이 리듬 검사에서 3문항, 가락 검사에서 3문항으로, 리듬 검사의 문항변별도 범위는 .08~.71로 나타났고, 가락 검사의 문항변별도는 .17~.68로 나타났다.

또한 리듬과 가락의 평균이 각각 .36, .38로 두 영역 모두 비슷한 문항 변별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각 문항은 상당히 좋은 변별력을 가진 문항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

48) 상계서, p103.

49) 재인용. 성태제. (2004). 문항제작 및 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학지사. p.98.

<표 14> KMAT의 문항변별도

KMAT 문항	리듬	가락
1	.35	.427
2	.29	.43
3	.39	.26
4	.71	.37
5	.46	.28
6	.39	.33
7	.24	.60
8	.52	.18
9	.30	.40
10	.48	.65
11	.40	.49
12	.51	.35
13	.39	.35
14	.43	.35
15	.51	.68
16	.25	.53
17	.14	.43
18	.42	.47
19	.35	.27
20	.34	.41
21	.20	.35
22	.23	.37
23	.28	.35
24	.40	.17
25	.40	.22
26	.08	.21
27	.15	.35
28	.55	.61
29	.43	.47
30	.30	.17
평균	.36	.38

### 3.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분석결과

#### 1)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는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을 받고 있는 연구 집단 5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재곡과 자유곡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리듬, 가락, 음악적 표현의 세 가지 평가영역을 갖는다. KMAT의 리듬 검사의 평균점수가 23.14이고, 가락 검사의 평균점수가 24.56으로 가락 검사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온 것과는 달리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에서는 교재곡 리듬의 평균점수가 3.17, 가락의 평균점수가 2.88, 음악적 표현의 평균점수가 3.11, 자유곡 리듬의 평균점수가 3.33, 가락의 평균점수가 3.09, 음악적 표현의 평균점수가 3.22로 교재곡과 자유곡 모두 리듬의 평균점수가 가락과 음악적 표현의 평균점수보다 높게 나왔다. <표 15>는 채점자 세 명의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 하위요소의 평균과 바이올린 성취도 점수의 합계에 대한 평균이다.

<표 15>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교재곡	자유곡	전체
리듬	평균	3.17	3.33	3.25
	표준편차	.87	.91	.89
가락	평균	2.88	3.09	2.98
	표준편차	.93	.96	.95
음악적 표현	평균	3.11	3.22	3.17
	표준편차	.97	.94	.95
합계	평균	9.15	9.63	9.39
	표준편차	2.44	2.37	2.40

## 2)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채점자 신뢰도

채점자 신뢰도(scorer reliability)는 채점자의 채점이 어느 정도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있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채점자 신뢰도는 채점자간(inter-scorer) 신뢰도와 채점자내(intra-scorer) 신뢰도로 구분된다. 채점자간 신뢰도는 채점결과가 채점자들 사이에 얼마나 유사한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채점자내 신뢰도는 한 채점자가 모든 채점대상에게 얼마나 일관성 있게 채점을 하였느냐를 의미한다.<sup>50)</sup>

본 연구에서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는 3명의 채점자가 채점했으므로 채점자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사용하였다. 문항 내적일관성을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KR-20과 호이트(Hoyt) 신뢰도, 크론바흐(K.J. Cronbach)가 고안한 크론바흐 알파(Cronbach Alpha)계수가 있

50) 성태제. (2000). 현대 기초 통계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교육과학사. p.106.

는데,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흐 알파계수를 사용하였다.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채점자간 신뢰도는 <표 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재곡은 .94이고 자유곡은 .92이다. 교재곡의 채점자간 신뢰도를 보면 음악적 표현에 대한 채점자간 신뢰도가 .88로 채점자들이 음악적 표현에 대한 성취가 높은 학생에게 대부분 같이 높은 점수를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가락과 리듬 점수의 채점자간 신뢰도는 각각 .75와 .83으로 리듬과 가락에 있어서 채점자들이 약간의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곡의 채점자간 신뢰도를 보면, 리듬이 .75, 가락이 .73, 음악적 표현이 .88로 교재곡과 같이 음악적 표현에 있어서는 높은 신뢰도를 보이나 리듬과 가락에 있어서는 의견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정도의 신뢰도이면 채점자들이 음악성취가 높은 학생에게는 높은 점수를 주고 낮은 음악성취를 보인 학생에게는 낮은 점수를 주는, 한마디로 일관성 있게 채점했다고 볼 수 있다.

<표 16>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채점자 신뢰도

	리듬	가락	음악적 표현	합계
교재곡	.75	.83	.88	.94
자유곡	.73	.73	.88	.92
전체	.74	.78	.88	.93

#### 4.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와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와의 상관관계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과 음악적성과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경실(2004)의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와 본 연구자가 개발한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를 실시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아동의 자발적인 연주와 흥미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바이올린 교재곡과 자유곡으로 구분하여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KMAT와 교재곡을 통한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상관관계

교재곡을 통한 바이올린 성취도와 음악적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하위요소와 KMAT 하위요소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리듬은 .71로 유의도  $p < .01$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락 또한 .54로 유의도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로 나타내어보면 리듬과는 51%, 가락 간에는 30%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KMAT의 하위요소인 리듬과 가락간의 상관도는 .70으로 유의도  $p < .01$ 수준에서 상관있음을 보였고, 교재곡을 통한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하위요소 중 리듬과 가락의 상관도는 .83( $p < .01$ )이었다. 따라서 KMAT의 하위요소들 간에는 약 49%가 서로 공통되는 것을 측정하고 있고, 교재곡을 통한 바이올린 성취도의 리듬/가락 사이에는 약 69%가 공통되는 것을 측정하고 있다. KMAT보다 음악성취도 검사의 하위요소들 간에 공통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KMAT 점수와 교재곡을 통한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73으로 유의도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로 나타내면 58%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표 17>과 같다.

<표 17> KMAT와 교재곡을 통한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상관관계

	교재곡 리듬	교재곡 가락	교재곡 음악적 표현	교재곡 전체
KMAT 리듬	.71**	.75**	.77**	.78**
KMAT 가락	.53**	.54**	.58**	.58**
KMAT 합계	.67**	.70**	.74**	.73**

\*\* $p < .01$

## 2) KMAT와 자유곡을 통한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상관관계

자유곡을 통한 바이올린 성취도와 음악적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하위요소와 KMAT 하위요소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리듬은 .71로 유의도  $p < .01$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락 또한 .54로 유의도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로 나타내어보면 리듬과는 51%, 가락 간에는 30%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KMAT의 하위요소인 리듬과 가락간의 상관도는 .71로 유의도  $p < .01$ 수준에서 상관있음을 보였고, 자유곡을 통한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하위요

소 중 리듬과 가락의 상관도는 .82( $p < .01$ )이었다. 따라서 KMAT의 하위요소들 간에는 약 49%가 서로 공통되는 것을 측정하고 있고, 음악성취도의 리듬/가락 사이에는 약 67%가 공통되는 것을 측정하고 있다. KMAT와 교재곡을 통한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에서 보여준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KMAT보다 자유곡을 통한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하위요소들 간에 공통점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KMAT 점수와 자유곡을 통한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72로 유의도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로 나타내면 53%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표 18>과 같다.

<표 18> KMAT와 자유곡을 통한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상관관계

	자유곡 리듬	자유곡 가락	자유곡 음악적 표현	자유곡 전체
KMAT 리듬	.71**	.71**	.76**	.76**
KMAT 가락	.52**	.54**	.56**	.57**
KMAT 합계	.67**	.68**	.72**	.72**

\*\* $p < .01$

### 3) KMAT와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상관관계

KMAT와 교재곡과 자유곡을 포함한 전체의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상관도는 .89( $p < .01$ )로 %로 나타내면 대략 78%의 상관관계가 있다. <표 19>과 같이 KMAT와 바이올린 성취도의 리듬 상관관계는 .79, 가락의 상관관계는 .84로 유의도  $p < .01$  수준에서 상관이 있었다.

KMAT의 하위요소인 리듬/가락 간의 상관계수는 .70( $p<.01$ )이고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하위요소인 리듬/가락의 상관계수는 .79( $p<.01$ )로 각 하위요소 간에 서로 상관이 있음을 보였다. 이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표 19>와 같다.

<표 19> KMAT와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상관관계

	성취도 리듬	성취도 가락	성취도 음악적 표현	성취도 전체
KMAT 리듬	.81**	.83**	.88**	.89**
KMAT 가락	.65**	.73**	.68**	.73**
KMAT 합계	.79**	.84**	.85**	.89**

\*\* $p<.01$

이 결과를 종합해보면, 음악적성과 바이올린 성취도와의 상관계수는 .89로 유의도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은 음악적성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유동적 음악적성 단계에 있는 아동들에게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이 그들의 음악적성을 개발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5. 음악환경과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아동이 처한 음악 환경과 음악적성, 바이올린 성취도와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제작한 설문지와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 현경실(2004)의 한국 음악적성 검사를 실시하여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아동이 처한 음악적 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총 8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음악환경과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의 상관관계

음악환경과 음악적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지 각 문항과 KMAT 하위요소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기를 연주하는 가족의 수’(설문 4번)와 KMAT 하위요소인 리듬과는 .36으로 유의도  $p < .01$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락과는 .29로 유의도  $p < .05$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악기를 연주하는 가족의 수’와 KMAT 전체 점수와는 .35로 유의도  $p < .01$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로 나타내어보면 리듬과는 13%, 가락과는 9%, KMAT 전체 점수와는 12%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악기를 연주하는 가족의 수’는 음악적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큰 수치는 아니지만 가정환경이 아동의 음악적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결과들을 고려해볼 때 유의미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해 가족이 어떤 음악적 환경에 노출되었는지 그 여부에 따라 아동의 음악적성 발달도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표

20>은 ‘악기를 연주하는 가족의 수’와 KMAT와의 상관관계 결과이다.

<표 20> 악기를 연주하는 가족의 수(설문 4번)와 KMAT의 상관관계

	KMAT 리듬	KMAT 가락	KMAT 전체
설문 4번	.35**	.29*	.34**

\*p<.05 / \*\*p<.01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 수강 기간’(설문 5번)과 KMAT 하위요소인 리듬과는 .33으로 유의도  $p<.05$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락과는 .35로 유의도  $p<.01$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 5번과 KMAT 전체 점수와는 .37로 유의도  $p<.01$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로 나타내어보면 리듬과는 11%, 가락과는 12%, KMAT 전체 점수와는 14%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 수강 기간’(설문 5번)과 음악적성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 수강 기간’이 어느 정도는 음악적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이올린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음악에 계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음악적성이 개발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이 연구결과를 통해 음악적성은 지속적인 바이올린 교육을 통해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1>은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 수강 기간’(설문 5번)과 KMAT와의 상관관계 결과이다.

<표 21> 바이올린 특기·적성 교육 수강 기간(설문 5번)과 KMAT의 상관관계

	KMAT 리듬	KMAT 가락	KMAT 전체
설문 5번	.33**	.35*	.37**

\*p<.05 / \*\*p<.01

하지만 예외의 결과도 있었다. ‘개인적인 바이올린 연습시간’(설문 6번)과 ‘바이올린 연주에 대한 선호도’(설문 7번), ‘바이올린 특기·적성 교육 수업의 만족도’(설문 8번)이 음악적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통계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인 바이올린 연습시간’과는 .21, ‘바이올린 연주에 대한 선호도’와는 .16, ‘바이올린 특기·적성 교육 수업의 만족도’와는 .20으로 수업시간 이외에 연습을 하고, 연주를 좋아하며, 수업시간에 대해 즐거워하는 것이 음악적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설문조사시의 환경적 문제에 방해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시간에 음악적성 검사와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시간상의 문제로 설문에 숙지하며 답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가 설문 문항과 음악적성과의 상관관계를 낮게 한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 2) 음악환경과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상관관계

음악환경과 바이올린 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지 각 문항과 바이올린 성취도 하위요소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기를 연주하는 가족의 수’(설문 4번)와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하

위요소인 리듬과는 .27로 유의도  $p < .05$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음악적 표현과는 .39로 유의도  $p < .01$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악기를 연주하는 가족의 수’(설문 4번)와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 전체 점수와는 .32로 유의도  $p < .05$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로 나타내어보면 리듬과는 7%, 음악적 표현과는 15%,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 전체 점수와는 10%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관관계 수치는 작으나 이 값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악기를 연주하는 가족의 수’(설문 4번) 바이올린 성취도와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2>는 설문 4번과 바이올린 음악성취도 검사와의 상관관계 결과이다.

<표 22> 악기를 연주하는 가족의 수(설문 4번)와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상관관계

	성취도 리듬	성취도 가락	성취도 음악적 표현	성취도 전체
설문 4번	.26*	.25	.39**	.32*

\* $p < .05$  / \*\* $p < .01$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 수강 기간’(설문 5번)과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하위요소인 리듬과는 .34로 유의도  $p < .05$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리듬과는 .38, 음악적 표현과는 .34로 유의도  $p < .01$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 수강 기간’(설문 5번)과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 전체 점수와는 .37로 유의도  $p < .01$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로 나타내어보면 리듬과는 12%, 가락과는 14%, 음악적 표현과는 12%,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 전체 점수와는 13%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큰 수치는

아니지만 이 값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 수강 기간’이 바이올린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표 23>은 설문 5번과 바이올린 음악성취도 검사와의 상관관계 결과이다.

<표 23>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기간(설문 5번)과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상관관계

	성취도 리듬	성취도 가락	성취도 음악적 표현	성취도 전체
설문 5번	.34*	.38**	.34**	.37**

\*p<.05 / \*\*p<.01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의도적인 음악 감상 여부’(설문 1번)가 바이올린 성취도의 하위요소인 리듬과 .32로 유의도  $p<.05$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적인 바이올린 연습시간’(설문 6번)이 바이올린 성취도의 하위요소인 음악적 표현과 .27로 유의도  $p<.05$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음악 감상이 리듬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인적인 바이올린 연습시간이 다른 요소보다도 음악적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상관관계 수치가 크지 않은데다 예상되는 일반적인 결과가 아니므로 이 부분은 더욱 자세하고 공정한 설문을 통하여 타당한 결론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다시 정리해보면, 다른 음악적 환경보다도 ‘악기를 연주하는 가족의 수’(설문 4번)와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기간’(설문 5번)이 음악적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바이올린 성취도 역시 ‘악기를 연

주하는 가족의 수'(설문 4번)와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기간'(설문 5번)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다른 요소들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존재하나 실제 생활에 있어서 큰 영향력은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 V. 결론 및 제언

### 1. 요약 및 결론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은 정서안정과 집중력을 기르는데 효과적이고, 합주를 통해 협동심과 음악의 이해를 기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채택되고 있다. 또한 9세 이전의 음악적성의 발달과 관련하여 다른 기악교육과 더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이 음악적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이 유동적 음악적성(Developmental Music Aptitude)의 단계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음악적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의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제주도 제주시내에 있는 2개 초등학교에서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을 받고 있는 3학년 아동 57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현경실의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와 본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설문지,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는 교재곡과 자유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제작된 평가기준에 따라 세 명의 평가자가 채점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에 의해 처리되었다. 평균(Mean),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신뢰도(Reliability), 문항난이도(Item Difficulty)와 변별도(Item Discrimination), 상관계수 등을 SPSS 12.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아동들의 KMAT 리듬 검사의 평균은 23.14, KMAT 가

락 검사의 평균은 24.56으로 현경실(2004)이 학년별 기준을 만들기 위해 조사한 초등학교 3학년 아동들의 평균보다 높았다.

둘째, KMAT의 신뢰도는 리듬 검사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84, 가락 검사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86으로 적성검사로는 높게 나왔다.

셋째, 난이도의 평균이 리듬 검사는 80.9, 가락 검사는 81.7로 연구 대상 아동들에게 적당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채점자 신뢰도는 리듬 영역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75, 가락영역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83, 음악적 표현 영역의 크론바흐 알파계수가 .88이었다. 이로써 채점자들이 일관성있게 채점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음악적성과 바이올린 성취도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KMAT와 바이올린 성취도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리듬이 .813, 가락이 .730으로 유의도  $p < .01$  수준에서 상관있었다.

여섯째, 설문조사 결과 ‘악기를 연주하는 가족의 수’(설문 4번)와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기간’(설문 5번)은 음악적성과 바이올린 성취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악기를 연주하는 가족의 수’(설문 4번)와 KMAT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34로 유의도  $p < .01$  수준에서 상관이 있었고, 바이올린 성취도와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32로 유의도  $p < .05$  수준에서 상관이 있었다. 또한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기간’(설문 5번) KMAT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37, 바이올린 성취도와의 피어슨 상관계수 역시 .37로 유의도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의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의 평가기준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채점자간의 신뢰도가 .93으로 나왔다는 것은 채점자들이 채점한 결과가 음악성취가 높은 아동에게는 높은 점수를, 그렇지 못한 아동

에게는 낮은 점수를 주어 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이 음악적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바이올린 성취도와 음악적성의 관계에서 서로 상관이 있음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셋째, 아동이 처한 음악적 환경이 음악적성과 바이올린 성취도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악기를 연주하는 가족의 수’와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 수강 기간’이 음악적성 발달과 바이올린 성취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바이올린 특기 · 적성교육과 음악적성이 서로 상관이 있음을 실험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이 유동적 음악적성의 단계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아동들의 음악적성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음악교육의 올바른 지표가 설정되기를 바라며 기초 연구자료 제시를 통하여 음악교육 연구에 있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2. 제언 및 후속연구

본 연구에서는 유동적 음악적성(Develpmental Music Aptitude)의 단계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와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이 그들의 음악적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바이올린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보다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평

가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는 본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들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모든 대상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무리가 있다.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는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 관련자들에게 바이올린 교육 효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는 일종의 실기평가로 변수가 많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도 어렵고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모든 상황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을 다양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여러 변수들을 생각해 보고 적용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는 9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검사로 유동적 음악적성의 단계라 할 수 있는 9세 이하의 아동들 혹은 유아에게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향후 음악적성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는 9세 이하의 아동들의 음악적성의 정확한 측정은 음악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들의 음악적성을 측정할 수 있는 한국적인 음악적성 검사가 개발되는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실험대상이 한국의 초등학교 3학년 모두를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전국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의 효율성을 증명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양한 분야의 음악성취도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특기 · 적성 교육으로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플루트와 피아노, 가창, 단소나 가야금 같은 국악기를 위한 성취도 개발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음악적성과 특기 · 적성 교육의 상관

관계를 연구하여 음악교육의 중요성과 특기 · 적성 교육의 당위성을 부여  
하기 위한 후행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 단행본

- 교육개혁위원회 편. (1995).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서울 :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 인적 자원부. (1998). 초등학교 교과과정 해설(V). 서울 :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혁신위원회. (2006). 방과 후 학교 확산을 위한 교육감 . 교육장과의 열린 대화.
-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 권덕원. (2006). 음악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 교육과학사.
- 성경희. (1997). 음악과교육론. 서울 : 갑을출판사.
- 성태제. (2004). 문항제작 및 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학지사.
- 성태제. (2000). 현대 기초 통계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 교육과학사.
- 이재오. (2001). 현행 특기적성 교육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2001년 국정 감사 정책자료.
- 이홍수. (1992).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이홍수. (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임미경 · 길애경. (1997). 초등 음악교수법. 서울 : 수문당.
- 조효임. 장기범 편저.(2005). 초등기악교육론. 서울 : 예일출판.
- 제주시 교육청. (2004). 특기 · 적성 교육활동 지도자료.
-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00). 방과 후 특별활동 지도방안.
- 현경실. (2004). 한국 음악적성 검사. 서울 : 학지사.

## 2. 정기 간행물

현경실. (1994). “음악 성취 테스트의 작성 및 평가”. 인천대학교 논문집 제 28집 제2호. p. 401~424.

현경실. (1998). “한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위한 한국 음악적성 검사의 타당도 연구”. 음악교육연구 제17집. 한국음악교육학회. p. 15~40.

현경실. (2000). “한국 음악적성 검사 개발 연구”. 국악교육 제18집. 한국 국악교육학회. p. 403~440.

현경실. (2002). “초등학교 기악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 논총 제10집. p. 209.

{조선일보} 2004년 9월 17일자.

## 3. 번역서

H.F. Abeles, C.R. Hoffer, R.H. Klotman 공저. (1991). 방금주 역.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 삼호출판사.

고야스 미치코. (1998). 임영희. 이아야 역. 「독일의 자존심 슈타이너 학교」 서울 : 밝은누리.

## 4. 국내 학위 논문

강석순. (2004). 한국음악적성검사(KMAT)의 타당도 조사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애자. (2003). 유아용 음악능력 측정 도구의 타당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유아교육대학원.

- 김혜숙. (1985). 바이올린 교육의 교육적 가치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류수연. (2003).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을 위한 초급교재 모형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설경. (2004). 초등학교 특기 · 적성 바이올린부의 실태연구. 석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배성애. (2002). 음악적성 및 음악흥미와 음악성취도간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인교. (2003). 초등학교 특기 · 적성 교육을 통한 바이올린 능력 향상 방안. 석사학위논문,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은라.(2005). 한국음악적성검사(KMAT)의 타당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선희. (2003). 특기 적성 교육과 연계한 초등학교 관현악반 운영 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영기. (2003). 아동의 음악 흥미도와 감성지능과의 상관성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인선. (2006). 피아노 조기교육이 음악적성, 학업성적에 미치는 상관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지연. (1998). 어린이의 음악적 감각발달단계에 따른 바이올린 교육. 석사 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현주. (2004). 초등학교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 함상리. (1998). 바이올린 조기 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5. 외국서적

Gordon, Edwin E. *The Nature, Description,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Music Aptitudes*, Chicago : G.I.A. Publications, Inc. 1987.

Menuhin, Yehudi H. *The compleat violinist : thought, exercises, reflections of an itinerant violinist*, New York : Summit Books. 1986.

# **ABSTRACT**

## **The Influence of Violin Lessons as Extra-Curricula Activity in Elementary School on Children's Music Aptitude**

**Lim, In Kyung**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produce basic data to prove that the violin lessons as extra-curricula activity had impacts on the third graders' development of music aptitude as they were in the stage of developmental music aptitude, as well as to suggest the directions to vitalize violin lessons as extra-curricula activity.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57 third graders that received violin lessons as extra-curricula activity at two elementary schools in Jeju City, Jeju Island. They were administered with the Korean Music Aptitude Test(KMAT) by Kyung Sil Hyun, a survey, violin achievement test developed by the investigator. The violin achievement test was given separately for the textbook pieces and free pieces. Three individuals

evaluated the students following the prepared assessment criteria. The collected data were treated with a statistics program called SPSS 12.0 to obtain mean, standard deviation, reliability, item difficulty and discrimination, and correlation coefficient.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served:

First, the subject children's mean of KMAT rhythm and melody test was 23.14 and 24.56 respectively, which were higher than the mean of the third graders examined by Hyun(2004) to produce grade standards.

Second, as for the reliability of KMAT, the Cronbach alpha coefficient of the rhythm and melody test was .84 and .86 respectively, which were rather high for aptitude tests.

Third, the mean difficulty was 80.9 for the rhythm test and 81.7 for the melody test, which implies that the items were proper for the subject children.

Fourth, as for the evaluator reliability of the violin achievement test, the Cronbach alpha coefficient was .75 for the rhythm, .83 for the melody, and .88 for the musical expression, which means that the evaluators scored the scores consistently.

Fifth, there were relationships between the children's music aptitude and violin achievement.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KMAT and violin achievement was .81 for rhythm and .73 for melody in the significance level of  $p < .01$ .

Sixth,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playing an instruments(Item 4), the period of taking violin lessons as extra-curricula

activity(Item 5), the children's music aptitude and violin achievement.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playing an instruments was related in the significance level of  $p < .01$  with it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KMAT at .34.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violin achievement was .32 in the significance level of  $p < .05$ . The period of taking violin lessons as extra-curricula activity had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of .37 with both KMAT and violin achievement, be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orrelation at  $p < .01$  level.

In conclusion, the experiment confirmed that violin lessons as extra-curricula activity were 强 related with music aptitude and proved that they had positive impacts on the music aptitude development of third graders that were in the stage of developmental music aptitude.

Although it's hard to say the results can be applied to all kinds of violin lessons as extra-curricula activity in various schools, this study will lead a group of researches on the positive effects of specialty and aptitude education on children's music aptitude and contribute to the vitalization of specialty and aptitude education and growth of music education.

<부록 1> 한국 음악적성 검사 답안지 양식

## 한국 음악적성 검사

학교	학년	반	번	이름
----	----	---	---	----

리듬		
문항번호	같음	다름
예제 1	○	○
예제 2	○	○

가락		
문항번호	같음	다름
예제 1	○	○
예제 2	○	○

번호	같음	다름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

번호	같음	다름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

<부록 2> 설문지 양식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음악적성과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여러분의 음악환경을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지에 응답하실 때는 한 질문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지의 응답 내용은 본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2005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임인경

학교명	이름	지도교사	바이올린 진도

1. 평상시 얼마나 음악을 자주 들습니까?

- ①매우 자주 듣는다.    ②자주 듣는다.    ③보통이다.  
④가끔 듣는다.    ⑤거의 듣지 않는다.

2.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 수강 여부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은 누구인가요?

- ①아버지    ②어머니    ③본인    ④선생님    ⑤기타

3. 집에서 노래나 악기 연주를 할 경우 가족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 ①매우 즐겨 듣는다.    ②즐긴다.    ③그저 그렇다.  
④관심없다.    ⑤싫어한다.

4. 식구 중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①1사람    ②2사람    ③모두    ④없다

5. 바이올린 특기 · 적성 교육을 수강한 기간은?

- ①6개월    ②1년    ③2년    ④3년

6. 바이올린 특기 · 적성 수업 시간 이외에 바이올린을 연습하는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일주일에 1-2회 ③ 일주일에 3-4회 ④ 매일 한다.

7. 바이올린 연주를 좋아합니까?

① 좋다. ② 그저 그렇다. ③ 싫다.

8. 바이올린 특기 · 적성 수업 시간이 재밌습니까?

① 좋다. ② 그저 그렇다. ③ 싫다.